

도전·개척정신으로, 위기 극복

기대만발, 신성장 동력 / 나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 / 신시장 개척나선 HHI



도전·개척정신으로, 위기 극복

- 04 기대만발, 신성장 동력
- 08 나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
- 10 신시장 개척나선 HHI

사람·일

- 12 CEO와의 대화
현대글로벌서비스 안광현 대표이사
- 14 현장을 가다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 선행14팀
- 18 자랑스러운 사우들
- 22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건설기계 해외영업2팀
- 24 아름다운 동행
울산 사회복지법인 물푸레 복지재단
- 26 이달의 도전
가족과 함께하는 펍아트 /
고수진 씨(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장철화 사우 부인)
- 28 든든한 파트너
(주)파나시아



“주전 앞바다의 봄을 기다리는 갈매기”

비상하는 갈매기의 힘찬 날갯짓처럼 우리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다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사진 손경식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04



10



14



32



38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546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지역·삶

- 30 지역 소식
울주군 자드락숲 /
'울산 삶으로 미래를 품다' 사진 특별전
- 32 겨울의 낭만 부산으로 떠나는 온천 여행
- 34 이달의 영화
- 36 맛있는 이야기 제철 맛은 '방어'
- 38 가볼 만한 곳 양산 원동 매화마을
- 40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동부동 이태형 씨
- 42 건강칼럼 수명
- 44 나를 만나는 시간 마음 속의 '화' 다스리기
- 46 알아봅시다 겨울철 실내 환기법
- 48 자녀와 함께 전국의 눈꽃 축제
- 50 가자, 평창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및 일정
- 54 만나보았습니다
이미희 씨 (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
이병길 부장 부인)

보람의 일터

- 56 뉴스 하이라이트
- 60 그룹사 소식
- 62 문화포커스
- 64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기타 교실
- 66 축구단 소식
- 68 현중 가족 글마당
- 76 사우들의 추천 도서
- 78 축하합니다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83 공감 마당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미래 성장 기회 찾는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시장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각 회사들도 각자의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LNG추진선 시장 선도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유(Heavy Fuel Oil)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중유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이산화탄소 등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킬로와트당 3.4그램 이하로 제한하는 환경규제를 발효한데 이어, 오는 2020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 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유 대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들을 장착해야 한다.

친환경 연료 중에서도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LNG다. ‘SMM 해사 산업 보고서(SMM Maritime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선주사 10곳 중 4곳 정도(44%)는 앞으로 신규 발주 시 LNG추진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LNG추진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부산 현대글로벌 서비스 본사에서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LNG 추진 벌크선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 현대미포조선 LNG연료추진 벌크선(일신해운)

현대중공업은 이 설명회에서 18만톤급 및 25만톤급 LNG추진 대형 벌크선을 선보였는데, 이 선박은 기존보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99%, 85%, 25% 이상씩 줄여,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다수의 LNG추진선을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월 5만톤급 LNG추진 벌크선을 일신해운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해 러시아 소브콤플로트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 유조선(11만4천톤급) 6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9% 니켈강 플러스코드와 이어 100% 이산화탄소 용접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친환경 LNG추진선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선박 제작 실정에서 신규 시설 투자비용 없이도 LNG선 연료 탱크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접 기술로, LNG선 시



▲ 선박 배기가스 세정설비



▲ 선박용 배기가스 세정설비 개념도



◀ LNG추진 광석운반선(조감도)

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배기가스 세정설비’ 시장 본격 진출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후처리 설비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배기가스 세정설비(Scrubber)’를 자체 개발하며, 친환경 선박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배기가스 세정설비는 선박 엔진의 배기가스를 물로 세척해 황산화물과 염산, 불산 등의 유해물질을 최대 99%까지 제거하는 친환경 장치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세정설비는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럽 업체들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일체형 설계를 통해 크기를 약 35% 줄인 것이 특징으로, 선박 신조 및 개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연간 50기 이상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배기가스 세정설비와 함께 대표적인 엔진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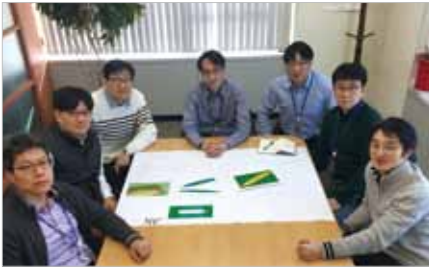
환경 설비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대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2년 중형엔진용 저감장치를 개발한데 이어, 2016년 대형엔진용도 개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중대형 선박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기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 2015년부터 배기가스 세정설비 장착을 위한 설계 기술 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기존 선박에 세정설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세정설비를 적재할 공간과 함께 걸러낸 유해물질을 저장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해 엔진룸 설계가 몇 배로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박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밸러스트 프리’ LNG병커링선 세계 첫 건조

한편, 현대미포조선도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선형(Hull Form)



▲ 현대미포조선 기본계획부 성능최적화과



▲ 밸러스트 프리 선형 3차원 조감도



▲ ESS(에너지저장장치)센터 완공

을 개발해 친환경 선박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기본설계부문 기본계획부는 오는 3월부터 건조에 들어가는 독일 ‘버나드슈테(Bernhard Schulte)’사의 7천 5백입방미터급 LNG 병커링선(Bunkering Vessel)에 대해 ‘밸러스트 프리(Ballast Free)’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박 평형수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건조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의무설치 규정이 2017년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신개념 선박의 탄생은 전 세계 선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밸러스트 프리(Ballast free) 선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평형수를 선체 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선체 외판에 구멍을 내어 선박 운항 시 해수가 유입된 뒤 다시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선저경사(Deadrise, 船底傾斜)를 활용한 특별한 선형을 개발함으로써 평형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복원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대미포조선이 개발한 선형은 두 번째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우선 선박의 거주구(Accommodation)를 선미가 아닌 선수 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운항 시 이른바 ‘중경사(Trim)’라 일컫는 선수와 선미의 흘수(吃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의 밑바닥 기울기인 선저경사를 활용해 일반적인 선박에 비해 평형수를 90%이상 획기적으로 줄이고 운항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선형을 찾아냈다.

무엇보다 선박 운항시 선수·미 또는 좌·우현의 미세한 흘수 차이 조정을 위해 해수(Sea Water) 대신 소량의 청수(Fresh Water)를 평형수로 적재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블록조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선박은 오는 5월 진수돼 마무리 의장작업을 거친 뒤 9월경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미포조선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형을 타 선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순환유동층 보일러’ 시장 확대 나서

현대중공업은 순환유동층(CFBC, Circulated Fluidized Bed Combustion) 보일러 사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순환 유동층 보일러는 주 연료(석탄 등 고체 연료)와 공기, 석회석을 동시에 주입, 낮은 운전온도의 순환 연소로 증기를 생산해 발전소 스팀터빈에 공급하는 설비다.

기존 보일러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석유정제 부산물(페트록)과 폐목재 및 농업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 다양한 고체 연료로 운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동층 보일러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은 한국전력 및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해외 페트록 발전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솔루션’ 사업 적극 육성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독립법인 출범과 함께 ICT 에너지솔루션 브랜드인 ‘인티그리(Integricity)’를 출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ICT 에너지솔루션’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끌어올리는 솔루션으로, 2020년에는 약 5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현대일렉트릭은 공장 및 빌딩에서 사용되는 전력, 열, 압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관리솔루션(EMS)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FEMS(Factory)’, ‘BEMS(Building)’로 구분한다. 또 선박의 에너지절감 및 안전운항을 실현하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 전력기기가 스스로 상태를 진단해 최적의 라이프사이클을 유지하는 ‘자산관리 솔루션(AMS)’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5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수주한데 이어 고려아연에서 150MWh 규모를 수주하며 세계 최대 산업용 ESS 수주 기록을 2번이나 갱신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동남아, 중동, 북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산업용

ESS보다 규모가 큰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자율작업 굴삭기 시대에 대비한다

현대건설기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에 기반하여 작업효율과 안전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형 굴삭기를 개발하고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굴삭기가 작업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MG(Machine Guidance)’ 기술을 상용화하고 내년에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반자동화가 가능한 ‘MC(Machine Control)’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MG/MC기술은 측량 작업과 불필요한 조작을 제거하여 공사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감함과 동시에 안전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용화에는 운전자의 작업패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최적의 동력을 공급하고, 연료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작을 유도하는 등 연비와 편의성 향상기술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우선 ICT 신기술 경쟁이 치열한 선진시장을 지능형 굴삭기로 돌파하고, 향후 AI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작업 굴삭기를 조속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굴삭기 MG 시스템 구성



“직장은 월급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발전 때문에 다녀야 한다.”

— 1986년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아산(峨山) 정주영 창업자

회사는 직원들의 꿈을 통해 성장한다.

기술과 노력, 협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멋진 한 해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꿈은

현대중공업그룹의 2018년을 기대하게 만든다.

올해를 회사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와 함께 신(新)성장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우들의 각오를 들어본다.



‘2018년은 위기 아닌 기회의 해!’



안녕하세요, 최고의 ‘선박 설계자(Naval Architect)’가 되고 싶은 임규선 대리입니다.

많은 사우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조선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최근 국제 해사기구가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LNG연료 추진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LNG 추진선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올해가 회사 재도약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LNG 추진선박 기술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서있을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선종별로 최적의 성능을 지닌 LNG 추진선의 개발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주요 선사들을 대상으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선박 수주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있으면,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멋진 기본계획부 식구들과 함께 2018년이 기회의 한 해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임규선 대리 (현대중공업 기본계획부)

나를 변화시킬 약속, ‘일주일에 책 한 권!’



굴삭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안재완 주임연구원입니다.

현재 저는 굴삭기 MG(Machine Guidance)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굴삭과 동시에 측량을 진행하며 운

전자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북유럽 등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었지만, 올해 처음 우리 기술로 만든 MG 시스템의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게 있어 2018년은 더욱 의미가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바빠다는 핑계로 2주에 1권 정도 독서를 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1주 1독’을 해내고 싶습니다.

회사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작년이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항상 좋음과 나쁨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회사에 발맞춰 저 역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안재완 주임 (현대건설기계 선행기술부)

조직의 변화 이끄는 '선봉장' 될 수 있기를



제가 일하고 있는 경영기획팀은 임직원들이 급변하고 있는 조선 산업의 흐름을 함께 읽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제조'라는 기술 흐름에 발맞춰 ICT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야드에서 보다 혁신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업부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게도 2018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경영환경과 기술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읽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내재적 동기를 끌어내고 잠재력과 열정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동료들과 하나씩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과 변화가 모여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먼 훗날 2018년을 돌아보며, 변화에 응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다졌던 소중한 한 해로 기억하리라 확신합니다.

채규일 부장 (현대미포조선 경영기획팀)

끈끈한 '팀워크'로 회사의 성장 이끌 것!



2018년은 저희 ICT사업부에게 특히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부서 설립 후 30여명의 소수 인원으로 1천200억원이 넘는 수주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작년 못지 않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는 현대일렉트릭의 ESS(Energy Storage System)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SS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장이나 산업시설, 친환경 발전설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SS 사업은 향후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것은 현대일렉트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팀 동료들과 함께 2018년에도 더욱 끈끈한 팀워크로 회사의 발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국 주임 (현대일렉트릭 ICT사업부)

현대중공업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해!



지난해 저희 열유체시스템연구실에는 기쁜 소식이 많았습니다. 2016년 개발에 성공한 선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저를 비롯한 동료 3명이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데 이어 회사

로부터 역대 최대금액의 우수성과 즉시포상을 받는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총 57기의 수주 실적을 거두는 등 저와 동료들의 노력이 현대중공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친환경 선박 개발을 통한 수주 증대와 기술적 리더'라는 목표 아래 작년부터 연구개발에 돌입한 선박용 배기가스 세정설비인 스크러버(Scrubber)로 더 많은 수주를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고의 대기환경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술사와 같은 공인 자격 취득에도 힘 쓸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맞이할 제2의 르네상스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2018년을 값지게 보내겠습니다.

성삼경 주임 (현대중공업 열유체시스템연구실)

현대삼호중공업 '위상' 드높이는 설비 개발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방침이 우리에게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지난 2015년부터 내로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탈황설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연구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 최적화된 설계가 나오기까지 참고 또 참아내는 인내력도 필요했습니다. 무던히도 연구에 매달렸던 날이 아직도 엇그제처럼 생생한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기존 운항 선박에도 탈황 설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설계수준이 높아져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에도 저희가 개발한 설비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뛰어난 설비를 제작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자랑하는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무 차장 (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

급성장하는 신시장, 전략적 접근으로 선점!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해외 기업과 손잡고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고,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영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해외 합작사 설립 통해 중동시장 확대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항 인근 라스 알헤어 지역의 킹 살만 조선산업단지에 합작 조선소 및 엔진 공장을 설립하고, 중동지역 시장 확대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국영 해운사인 바리(Bahri) 등과 함께 지난 12월 합자회사 IMIC(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Company)를 설립했다. 이 합작사는 사우디 정부 투자로 조성되는 150만평 규모의 조선소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양도받아 조선소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약 5조원이 투자되는 합작조선소는 2019년 작업리그 신조를 시작으로, 2020년 일반상선, 2021년 해양작업지원선(OSV) 신조에 이어 2022년 수리선 전용야드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IMIC는 다양한 선종의 신조뿐만 아니라 수리까지 가능한 종합 조선해양기업으로서 조선해양설비 제작의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합작사업으로 사우디 내 발주 선박의 수주우선권을 확보하고, 4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아람코 및 산업투자공사인 두스르



(Dussur)와 함께 사우디 엔진 합작사를 설립하여 중동지역 엔진발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우디 엔진 합작회사는 총 4,5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및 육상용 중대형 엔진 및 박용펌프를 생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는 중동 전력수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중동지역 디젤엔진 발전 시장이 2026년까지 1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중동 내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아람코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중동 지역으로의 힘센엔진 라이선싱 사업, 현지 생산 및 A/S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 동남아 시장 집중 공략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 최대 전력시장인 태국 방콕에 지사를 신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경제 규모 2위의 국가다. 태국의 전력기기 시장은 지난해 1조7천억원에 달해 동남아 시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그



간 태국 전력기기 시장은 고온 다습한 기후와 태국전력청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유럽과 일본의 일부 업체들이 주도해 왔다.

현대일렉트릭은 2012년 한국 기업 최초로 230kV(킬로볼트)급 고압차단기를 수주하며 태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7월 태국전력청과 총 200억원 규모의 500kV급 초고압차단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322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중진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700억달러(약 78조원)를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전력발전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5만7천459MW(메

가와트)의 발전 설비 용량을 신규로 증설할 예정이다.

태국이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중 약 38%가 신재생 에너지로,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에 있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건설에 2030년까지 연평균 2천100억 달러가 투자되며, 이 중 1천100억 달러 이상이 전력 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태국을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고,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신규 고객을 개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기계, 새로운 딜러 개발로 시장 개척

현대건설기계는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시장의 비중이 높다. 이에 지난해 4월 독립법인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가장 먼저 해외딜러개발팀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딜러개발팀은 세계 각국을 누비며 새로운 딜러를 개발해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기계는 140개국 540개 딜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딜러가 없는 국가도 있고, 딜러가 있더라도 역량이 부족해 실적이 부진한 지역도 있다.

이에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딜러개발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 지역별 정보를 수집하여 역량 있는 우수한 딜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베트남, 파키스탄 등 대형 거래처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모리셔스, 홍콩 등 공백지역에도 역량 있는 딜러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딜러들의 사업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딜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딜러에게는 판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판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회사’로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매출 2천억원대, 수주 3억달러대를 달성하며, 출범 1년 만에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안광현 대표이사를 만나 앞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회사는 어떤 변화를 이뤄냈나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그룹 미래전략에 맞춰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해양플랜트, 전기전자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설계·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관련 서비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출범과 동시에 각 사업본부와 계열사에 분산된 서비스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10개의 지사, 20여개의 협업지사를 운영함으로써 영업력을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그룹사와는 통합 데이터시스템인 ‘MAPS’를 구축해 부품 관련 설계, 기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1993년부터 부품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서비스 경험과 역량 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고객사와 생애주기정비계획과 중장기 협업을 통해 제품별, 지역별 전문기술별 수요화 현상을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서비스 전략까지 수립하여 고객과 상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나요?

우리 회사는 선박과 육상 엔진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유·무상 정비와 부품 판매, 수리, 개조, 성능개선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용 부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육상발전과 보중대행, 기술 서비스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서비스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해 2월에는 스웨덴 조선기자재 업체인 알파라발(Alfa Laval)과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개조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데 이어, KSS해운과 '선박 배기가스 세정설비 설치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존 중대형 LPG운반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설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가 출시돼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선주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회사가 직접 기획 단계부터 생산, 운용, 유지보수까지 전 생애에 걸쳐 선박과 관련 기술을 통합 관리합니다.

적시에 부품을 교체해 고장을 막고 설비 운영효율을 높여 선주사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One Stop) 서비스로 운영돼, 높은 고객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정기선 부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미래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8년 매출 4천500억원(수주 6억불)에서 2022년 매출 2조원(수주 23억불) 규모로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19년까지 빅데이터(Big Data), 딥 러닝(Deep Learning)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운항선박을 비롯한 육상 엔진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관리(PLC)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선박은 각종 센서로 주요 부품을 모니터링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고장확률까지 알아내는 수준으로 발전됩니다. 고객만족도와 품질 수준을 끌어올려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탑 티어(Top Tier)'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임직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그룹 임직원들이 안전함만 찾고 현실에 안주할까 걱정입니다. 두렵지 않은 도전은 없겠지만, 끊임없는 도전은 기업과 직장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사원 시절인 2000년 국내 최초의 중형엔진인 힘센엔진(HiMSEN)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개발진은 고압력(당시 200bar)·희박연소 기술을 실현시켜 경쟁사보다 높은 출력을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주변에서 무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힘센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중형엔진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자신감을 찾고, 누구나가 부러워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이뤄내면서 그룹 임직원의 희망과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hi,hhi'에서 안광현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만나보세요.



안광현 대표이사 약력

지난 198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후 엔진기계사업본부 설계부와 개발부서를 오가며 중형엔진과 공작기계를 비롯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2012년에는 힘센엔진 개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13년 현대중공업 중형엔진생산, 엔진기계 고객지원 담당임원, 그룹 A/S 총괄 부문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수한 선박 탄생!”

배 짓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 강재 절단부터 가공, 조립, 블록 탑재 등의 공정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 척의 선박이 완성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수한 성과를 거둔다’는 말처럼 꼼꼼한 선행 공정으로 고품질 선박 건조의 밑바탕을
그리고 있는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 선행14팀을 소개한다.





작업 전 이해는 필수

1월 중순, 선행14팀은 선박 블록마다 기본적인 배관과 전기 장비 등을 설치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팀장인 조훈택 기원(45세)은 “선실의 단열재(Insulation) 작업까지 마무리하려면 한 동안 정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각 블록에서 다루는 의장품은 무려 50여종. 한 순간 방심하면 엉뚱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 작업 전에 도면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보였다. 마침 1월 22일 선행14팀이 담당하고 있는 폴라리스쉬핑사의 32만톤급 광석운반선(2947호선)이 기공(Keel Laying)을 앞두고 있어 이들은 더욱 분주했다.

이 광석운반선은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LNG 추진선으로 개조 가능한 첫 선박인 만큼 선주와 선급 협회로부터 철두철미한 감독을 받고 있었다. 비록 낯선 유형의 선박을 작업하고 있지만, 선행14팀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전 이해 없이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원칙이 이번 공사에도 어김없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시흥 기장(55세)은 “예전에 접했던 것과 달리 갑판부 블록이 더 두껍고 용접 소재도 달라졌다”며, “설계부서로부터 선체강도를 높이기 위한 특징임을 설명 듣고, 작업 시 주의사항을 팀원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행14팀의 생산조장들은 술선수범하여 선각(船殼, 선박의 골격을 만듦) 공장을 찾아 광석운반선의 블록들을 미리 확인하고, 작은 궁금중이라도 발생하면 꼭 설계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등 공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현장 안전을 높이는 제안활동

선행14팀은 조선 내업부문에서 철저한 안전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다. “손 조심! 발 조심!”이란 안전구호를 외치며, 하루에 4번씩 진행되는 TBM 안전회의가 눈길을 끌었다. 보통 오전·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TBM 회의를 갖는 다른 팀과는 달리, 이들은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팀원 스스로가 현장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선행의장 작업자는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들을 잇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칫 손가락이나 발가락 끼임사고를 당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14팀은 사고예방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2천600일동안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팀원들은 동료의 불안정한 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이야기해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제안 아이디어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선행14팀은 배관 설비(Unit)의 보강재들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느껴, 지난 2013년 이 작업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이로써 현장 안전을 챙기는 것은 물론 연간 3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황석원 사수(41세)는 “무재해 달성을 이루려면 요행을 바라는 안 되고, 팀원 모두가 기본수칙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막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계발은 성장의 밑거름

선행14팀에는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넘쳐난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아 전장, 철의장 등 동시에 여러 의장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성구 사수(43세)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용접, 배관, 에너지, 위험물, 금속재료 등 5개 기능장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잇달아 따냈고, 지난해 2월에는 현대중공업 공과대학(조선해양학과)에서 유일하게 전 학기 만점(4.5점)으로 졸업했다.

또한 이재형 사수(32세)도 현대중공업 공과대학에서 평균 4.3학점을 기록하며, 오는 2월 말 조선해양학과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다. 이재형 사수는 “선행14팀에서만 2년 연속으로 과 수석이 탄생했는데,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팀 분위기가 크게 한 몫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김승택 사수(45세)와 전상민 사수(53세)는 각각 배관기능장과 용접기능장을 보유하고, 기술자격 준비에 나서는 팀 동료들에게 자신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치는 등 안팎으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안전 작업으로 후행 공정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는 선행14팀. 고품질 선박을 위해 오늘도 기초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선행14팀 사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회사를 빛낸 영광의 2017 대상 수상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무기로 2017년 한 해를 자신의 해로 만든 이들이 있다.
각 사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명실상부 최고의 상을 수상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았다.

현종인상 >>

“선체 가공 곡(曲) 성형 기술 개발팀”

왼쪽부터 정중현 과장·김동호 기장
·진형국 책임연구원·전득재 선임연구원



미포인상 >>

“PC선 의장품 설계 개선팀”

왼쪽부터 김승현 대리·
권오구 과장·장광일 차장·
김성필 과장·이창호 차장



2017년 현종인상 대상의 영예는 '선체 가공 곡 성형 기술'을 개발한 진형국 책임
연구원, 전득재 선임연구원, 정중현 과장, 김동호 기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대조립부와 대조립5부 등에서 100% 수동 가열작업으로 제작하고 있는
선체 곡 외판의 성형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냈다. 이 기술을 활용
하면 기존 수동 작업 대비 최대 250%의 생산성 향상과 연평균 10억여원의 원가절
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현대중공업이 곡 외판 성형 기술을 자동화하고자 했던 노력은 이번이 처음
은 아니다. 가열 작업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차례
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의 이번 수상이 더욱 빛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를 주도한 진형국 책임은 “기술이 100%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계
속된 시행착오에도 끈기 있게 연구를 수행해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은 것 같
다”며, “이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로서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실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구기간이 길었던 만큼 에피소드도 많았다. 기술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위해
생산 현장에 시제품(Prototype)을 설치했으나, 사용이 쉽지 않았다. 최대한 다른 공
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크레인을 작동하다가 몇몇 사우
들에게 시끄럽다며 혼이 나기도 했다.

주변의 선입견도 존재했다. 과거의 다른 자동화 기술처
럼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 채 끝날 것이라고 말하
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개발팀의 열
정과 진지한 자세를 보고 대조립5부 사우들은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목표를 향한 불굴의 집념을 통해 의심
을 '확신'으로, 도전을 '성과'로 변화시킨
대상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
를 보낸다.



현대미포조선 최고 권위의 상인 '올해의 미포인상' 대상의 주인공은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인 5만톤급 PC선의 의장품 설계 표준을 재정립해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킨 장광일 차장 등 5명이다.

지난해 의장설계부문의 'PC선 최적화'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기장설계부, 배관설계부, 선장설계부, 선실설계부, 전장설계부 등 각 부서를 대표해 수상했다.

시작 초기 일부 동료들은 10~30%에 달하는 절감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서원들을 다독이며 프로젝트를 이끈 이들의 활약으로 현대미포조선은 철의장품의 최적화와 경량화를 통해 지난해 총 105억2천만 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장광일 차장은 "의장설계부문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상금도 똑같이 나누겠다"고 훈훈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현대
삼호인상

“탈황설비 설계 메가블록 공법 고철잔재 활용”

왼쪽부터 최귀용 부장·전영수 상무·김기섭 차장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현대삼호인상'에 전영수 상무, 최귀용 부장, 김기섭 차장이 공동 선정됐다. 이들은 일감 부족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개선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 받았다.

전영수 상무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끝에 2020년에 건조되는 신조 선박뿐만 아니라 현재 운항되는 선박에도 황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는 '탈황설비(Scrubber)'를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현대삼호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기술력을 확보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최귀용 부장은 도크 내 잉여 공간을 이용한 '메가 블록(Mega Block) 공법'을 고안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 공법은 한 개의 도크에서 선박 2척을 건조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5개의 조립블록을 100% 선행화하여 결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1도크 외업 공정 전반에 업무 과부하가 일부 해소됐고, 족장 철거 및 검사 등의 공정 단축으로 총 3억4천6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이울러 최귀용 부장은 2개의 초대형 블록을 결합해 한 척의 선박을 만드는 '육상건조장 테라 블록 건조 공법'을 통해 공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원가절감에 관심이 많았던 김기섭 차장은 고철 잔재의 활용 폭을 크게 넓히는 노력을 통해 총 4억 원의 자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기섭 차장은 강재 절단 후 발생하는 고철 잔재의 활용을 위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잔재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왔다. 회수된 잔재는 선각 및 의장용 부재, 치구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영수 상무는 "밤낮없이 프로젝트 진행을 함께 한 사우들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며, "조선업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어떤 위기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압원통형 발전기 신모델 개발팀”



뒷줄 왼쪽부터 **유기훈** 과장, **정승욱** 주임연구원,
최장운 주임연구원, **차재명** 주임연구원,
장충만 주임연구원
 앞줄 왼쪽부터 **김관영** 부장, **이상학** 부장, **전무중** 과장,
김원기 책임연구원



독립법인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현대일렉트릭인상’은 ‘고압원통형 발전기 신모델’을 개발한 전무중 과장 등 10명의 사우에게 돌아갔다.

고압원통형 발전기는 1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자 회사 발전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일렉트릭의 주력 모델로서, 이번 신모델 개발을 통해 현대일렉트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팀 사우들은 2년여간의 개발기간 동안 냉각 성능 증대와 부품 중량 감소 등의 제품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 밀도와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높여 고객 대응력을 끌어 올린 결과, 지금까지 총 243대의 제품을 수주하는 등 출시 1년 만에 선박용 발전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신모델 개발에는 경쟁사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 한창 연구에 매진하던 개발팀은 경쟁사 제품을 직접 확인한 뒤 ‘이것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업계 최고를 향한 불타는 승부욕은 개발팀에게 더욱 간절하고 치열한 순간순간을 만들어주었다.

전무중 과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동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해준 덕분”이라며,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배운 이번 일을 경험 삼아 현대일렉트릭이 업계 탑 티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인상 대상에는 ‘옥션 추진팀’ 선정

현대건설기계인상 대상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고 건설장비 경매행사를 성공으로 이끈 ‘옥션 추진팀’이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에서 열린 ‘현대건설기계 옥션’ 행사에는 주요 신흥국의 대형 딜러 100여명을 비롯해 1천여명의 국내외 고객들이 참여했으며, 준비한 150여대의 중고장비가 모두 판매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중고 건설장비 시장 활성화와 신차 구매 선순환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며, 중고 고객사 및 국내외 소비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현대로봇인상은 대상 없이 분야별 최고 성과자에 수여

현대로봇인상은 대상을 대신해 각 분야의 최고 수상자들을 뽑아 포상금을 전달했다. 영업 분야에서는 신규 시장을 개척해 클린용 로봇 수주에 기여한 한철희 부장이 선정됐으며, 클린용 로봇의 신모델과 성능 개선에 성과를 낸 김태현 선임연구원이 연구 분야 현대로봇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술 분야에서는 고려아연 제련공장의 자동화 설비 개발을 이끈 박정용 차장이 수상했다.

정성과 숨결로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

현대중공업 공태호 기장(42세, 판넬조립1부)과 현대일렉트릭 정규완 기감(51세, 제품보증부)이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기술인에 선정되며, '울산시 최고 장인'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장인'은 울산시가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 및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장인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공 기장과 정 기감을 포함해 총 4명만이 영광을 안았다.

선박 건조 직종 최고 장인에 뽑힌 공태호 기장은 제34회 국제기능올림픽 철골구조물 금메달리스트이자 현대중공업 사내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용접 명인(名人)에 이름을 올린 자타공인 베테랑 기술자다.

울산시는 지난 24년간 대한민국과 현대중공업 선박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한 그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기술 전수와 후진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태호 기장은 이번 최고 장인 선정으로 받은 기술장려금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전기 직종 최고 장인에 오른 정규완 기감은 현대일렉트릭을 대표하는 현장 개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지난 30년간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2015년에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와 현중다물단 기획국장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규완 기감은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에서 장인으로 선정돼 더욱 영광스럽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더불어 기술 후계자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일렉트릭
정규완 기감
(51세, 제품보증부)

현대중공업
공태호 기장(42세, 판넬조립1부)

유라시아 지역을 주름잡는 ‘젊은’ 영업조직

I 팀 업무 소개

해외영업2팀은 러시아,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이스라엘, 터키 지역을 맡아 건설장비의 선적부터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회사의 최신 장비나 사업 비전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소중한 고객의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건설기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건설장비 해외영업 직수출 부문에서 영업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의 주력 장비인 초대형 광산 장비가 큰 경쟁력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죠. 러시아의 드넓은 땅에서 위용을 뽐내는 120톤 굴삭기(R1200-9)를 보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솟는답니다.

CIS는 저희 팀이 맡고 있는 네 지역 중 가장 낯설지만, 알고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딜러사들의 대부분이 고려인이기 때문인데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쾌활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알면 알수록 친근한 딜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 우리 회사와의 관계에도 ‘형제’라는 수식어가 매우 잘 어울립니다. 터키의 딜러는 현대건설기계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는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I 팀장 인사말



장정우 과장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진실로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라)”

상나라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매일 씻으면서 봤다는 글귀입니다.

오래된 명문이기에 당연히 받아들이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하를 얻은 왕이 무엇 때문에 저 문구를 보며 자신을 다독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현재의 나를 과거에 비추어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건설기계 해외영업2팀도 이 글귀를 마음 속에 새기고,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 순간 도전하고 있습니다.

I 주목 이 사람!



신상영 사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의미를 두는 가중치는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그것은 ‘추억’입니다.

저는 공군에서 중위로 전역한 후, 신뢰성평가부를 거쳐 해외영업2팀에서 근무하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영업2팀이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CIS, 터키, 이스라엘 시장은 알아갈수록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더불어 현대건설기계도 신뢰와 품질 향상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공기영 사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우문현답’ 정신을 깊이 새겨,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빛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선배배님들과 함께 멋진 팀에서 일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I 동아리 소개

영어 번역 동아리

현대건설기계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로!

지난 12월 추운 겨울, 해외영업 구성원들이 뜻 깊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ADRF)에서 지원하는 지역 난민 연말성장보고서 번역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봉사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시작하였으나, 빈곤 아동들의 힘들었던 성장기를 함께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두 눈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소한 것도 힘들다며 불평했던 우리들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봉사의 매력을 알게 된 저희들은 영어 번역 동아리를 결성하고, 매달 최소 1번 이상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협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역자격증 스터디

이 지역의 전문가가 나야 내!

팀원 대부분이 공학대학 출신인만큼 고객의 필요 충족 및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역자격증 스터디를 꾸리고, 주 2시간씩 별도의 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무역영어 및 국제무역사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분주하게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I 우리 팀 각오

신시장 개척으로 ‘1등 기업’ 도약 이끌겠습니다!

해외영업2팀은 모스크바 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과거 판매가 침체되거나 부진한 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달러 교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95%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달러를 발 굴 및 교체하여 판매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영업2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 톱 건설장비 메이커’ 도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사회 편견에 두 번 우는, 미혼모 보듬는 희망의 안식처

한부모, 다문화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89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차가운 현실·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혼모'

국가적으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등 부모와 사회가 함께 양육에 책임을 지는 가족지원사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그대로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편견, 냉대 속에 고통 받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미혼모 가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발생 비율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혼모는 2만4천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미

혼모가 설 곳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함께 미혼모들은 '비도덕적'이라는 굴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미혼모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것.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가 이들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떨까? '임신'과 '출산'이라는 순간을 홀로 버텨내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현대중공업이 도움의 손길을 건넬다.



울산 유일의 미혼모 기관, '물푸레'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울산 유일의 미혼모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물푸레 복지재단과 첫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물푸레 복지재단은 미혼모 생활시설인 '미혼모의집 물푸레'를 시작으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울산의 사회복지기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이름은 나무가 단단하고 그 이파리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되는 '물푸레나무'처럼 미혼모들이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물푸레 복지재단은 미혼모의 출산과 자립을 돕는 '미혼모의 집 물푸레'와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안단테'를 운영한다. 특히 '미혼모의집'에서는 미혼모의 건강관리부터 자아회복,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물푸레' 시설에는 8명의 미혼모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임신부이고 6명은 몸을 쫓지 얼마 안 된 미혼모다. 임신부와 수유를 하는 엄마로서 잘 먹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정부 및 여러 단체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부식이 부족해 운영 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아이와 예비엄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kg의 백미 5포를 매월 지원하고, 명절에는 과일 및 미역 등의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올해는 늘 손이 부족한 시설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대중공업 사내 여사원회인 다모아회, 그룹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이 힘을 보태 시설 개보수 및 청소, 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미혼모의 자립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 펼쳐

한편, 물푸레 복지재단은 미혼모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쓴 글을 모아 지난 2011년 '나는 미혼모다', 2016년 '안단테 안단테'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미혼모들이 불안한 미래와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자신과 대면하여 써 내려간 솔직한 이야기들이다.



재단은 생명을 지킨 미혼모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혼모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널리 퍼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미혼모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라고.

이에 물푸레 재단은 미혼모들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미혼모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직업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떡 공예' 등 다양한 진로 및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취업 관련 기술이나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아이 옷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의 판매 바자회를 실시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판매 수익금을 미혼모 복지증진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혼모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물푸레 재단! 현대중공업도 이 재단에 작은 힘을 보태며 미혼모들의 작은 날갯짓을 응원해본다.

'미혼모의집 물푸레' 이정숙 원장 미니 인터뷰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기관은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회복을 지원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는 울산 유일의 미혼모 기관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혼모들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온전히 아이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혼모들은 생명을 지킨 용감한 엄마임을 기억해주세요요~



물품후원 안내

아기용품(기저귀, 아기 옷, 물티슈, 분유 등), 일상 생활용품(휴지, 세제), 산후 조리용품(패드 및 생리대, 몸조리 음식 등), 부식, 임부복 등

주소 울산시 중구 성안10길 16

후원계좌 : 농협 835-01-220901 (물푸레복지재단)

문의 : 052-903-9200

“자녀와 함께 헌 책에 생명 불어넣어요”

‘펩아트’를 아시나요?

펩아트는 페이퍼 아트(Paper Art)의 줄임말로 더 이상 보지 않거나, 색이 바래 보기 힘든 책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공예를 말합니다.

전시회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펩아트의 아기자기한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색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팔색조 매력 가진 펩아트

펩아트는 낡고 오래된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변신시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래 되어서 색이 변질된 책은 오히려 그 변질된 색으로 인해 우아함을 풍기고, 두꺼워서 들기도 힘든 서적은 정밀한 그림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가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로고도 표현할 수 있는 펩아트는 정말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종이들을 모아서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버릴 것이 없는 공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손재주가 없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제품 책으로 만든 멋진 작품

우리 가족은 각각의 관심분야가 달라 가족이 함께하는 수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펍아트는 책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든다는 것으로 가족 모두가 흥미를 갖게 됐고, 방법이 어렵지 않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펍아트는 책의 단면에 원하는 문양을 그리고 페이지마다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접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소 난이도가 높아 초보자의 경우 펍아트 용으로 나온 책을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가족도 'LOVE YOU'라는 반제품 책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책장을 하나하나 접으며 나타나는 모양새에 신기해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부부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니 개성이 드러나는 멋진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함께이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

평소 업무로 바쁜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은 아빠와 같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즐거워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아이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흐뭇해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에 대해 각자 이야기를 하며 그 동안 품었던 가족간의 대화시간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예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 역시도 가족과 함께 하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웠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가족과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뜻 깊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이것저것 만드는 것에 무관심하던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이 환호해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해보고 싶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펍아트 교실

주소 울산시 북구 통샘길 28 상화빌딩 4층 펍아트 울산지부
문의 010-8788-3868 (최수정 강사)

친환경·에너지 설비전문 기업 도약을 꿈꾼다!

조선업계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순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조선 기자재 시장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파나시아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친환경’ 바람 타고, 선박평형수 시장 선도

1989년 선박용 수위계측장비를 제작·판매하는 범아정밀엔지니어링(주)파나시아의 전신)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지금의 법인명으로 변경한 (주)파나시아는 ‘친환경’과 ‘스마트’를 미래 전략 키워드로 삼아 조선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다.

파나시아는 크게 △선박용 수위계측장비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탈황 저감장치 △탈질 저감장치를 제작하고 있는데, ‘글로벌-패트롤(GloEn-Patrol™)’이라 불리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가 파나시아를 대표하는 주력 제품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낮춰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바닷물인데, 평형수에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각종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24년까지 미

생물을 살균하는 처리장치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미생물 살균에는 전기 분해, 자외선 투사, 화학약품 처리 등의 방식이 쓰이는데, 파나시아는 자외선 투사 방식의 평형수처리장치를 만들고 있다.

2010년 8월 1호기 출하를 시작으로, 파나시아는 현재까지 약 1천200척 분량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수주했으며 900여척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수주 물량 중 절반가량인 580척 분량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에 수주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명품’을 만들겠다는 파나시아의 확고한 품질 정책은 파나시아만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 파나시아는 최근 ‘글로벌-패트롤’에 대해 노르웨이·독일 선급협회(DNV-GL)의 승인 및 미





▲ 파나시아 전경

▲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



◀ GloEn-Patrol

국해안경비대(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의 형식 승인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전세계 70여개 평형수처리장치 업체 중 USCG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6개사뿐이어서, USCG로부터 형식 승인을 위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 자체가 파나시아의 기술경쟁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또, 파나시아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본사에 제품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필요한 유지보수(MRO, Maintenance·Repair·Oper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위성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6개국에 4개의 별도법인과 41개의 대리점을 두고 적시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자사 제품의 교육장비를 배치하고 가상의 교육 프로그램(CBT, Computer Based Training Program)을 활용하는 등 원활한 장비의 구동을 위하여 서비스 대리점 및 선원들의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나시아는 시장과 고객의 모든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며 친환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자사 제품(Pa-SOx Smart v2.0)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국내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탈황 저감장치 제작업체로서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LNG 연료공급장치(FGSS, Fuel Gas Supply System) 등 신사업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헛수로 28년째, 현대중공업그룹과 끈끈한 인연

1991년 파나시아가 현대중공업에 수위계측장비를 납품하며 시작된 협력 관계는 2009년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현대중공

업그룹에 납품하며 더욱 공고해졌다. 파나시아 전체 매출액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차지하는 비율만해도 2016년 30%로 약 156억, 2017년 28%로 127억 수준이다.

지난 2013년에는 중동 선사인 UASC 사에서 발주한 1만4천 TEU급 컨테이너선 11척에 대해 약 523만불 수준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납품하는 등 괄목할만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대중공업과 깊은 신뢰를 쌓기도 했다.

한편, 파나시아는 현대중공업 협력회사협의회회장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63세)가 그룹 협력사 대표와 함께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학교생활로 모범이 되는 울산지역 5개 학교와 전남 영암 중·고교 학생 8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실 이수태 대표는 부산대 기계과 졸업 후 약 6년간 현대중공업 배관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원조 '현대맨' 출신이다. 이 대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했을 무렵, 국내 조선업은 핵심기술 없이 설계도면을 일본에서 받아와 조선소에서 건조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각종 센서, 펌프, 열교환기 등 기자재도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이 대표는 국내 조선업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기자재 사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1989년 범아정밀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다. 무일푼 창업이었지만 1997년 탈질·탈황 저감장치, 2007년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개발하며 지금의 파나시아를 만들었다.

조선·해운업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지만, 파나시아는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 한층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 속에서 파나시아가 새롭게 도약할 날이 기대되는 이유다.

숲길 따라 즐기는 ‘평온한 산책’



울주군 자드락숲

울주군 두서면 서하천전로 76 화랑체육공원 옆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은 그 매력적인 중독성에 빠져 자꾸 찾게 된다는 뜻이다.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에 위치한 자드락숲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싶다. 네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숨은 장소를 보물찾기하듯 다녀왔는데, 떠나기도 전에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자드락숲에 가려면 화랑체육공원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이정표를 따라 나무다리를 건너면 된다. 쪽 이어진 나지막한 비탈길 산책로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 오르는 길목에 서 있는 정자가 운치를 더해준다.

생소한 단어인 자드락은 ‘자연이 드리는 즐거운(樂) 숲’이라는 의미로 각 어절의 앞 글자를 따서 ‘자드락’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연꽃연못과 인공습지, 수목학습장, 산책로, 파고라,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보인다.

또한 ‘수국길’, ‘벚꽃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책로를 보니 개화시기에 맞추어 오면 멋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은은한 꽃향기에 취해볼 수도 있겠다.

한편, 이곳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는 튼튼한 그물로 엮은 흔들다리와 알록달록한 5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긴 슬라이드는 꽤 가팔라서 짜릿한 스릴이 넘친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길이가 짧은 미니 슬라이드로 유아들이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슬라이드 위에 있는 흔들다리에 올라서니 마치 전망대처럼 주변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보이는 산과 산 사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여유로움을 바라보는 사이, 그 앞을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열차의 굉음에 깜짝 놀랐다. 그 묘한 대조가 재미있는 이곳에서는 각 계절별로 특색 있는 자연의 순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은 겨울이라 쓸쓸한 적막이 감돌지만, 그런 까닭에 정적을 깨우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더 반갑게 느껴진다. 화려하게 꽃이 피어날 다음 계절을 기다리며 자드락 숲길을 거닐어보고, 춥다고 소홀했던 야외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를 바란다.

다만 주변에 화장실 외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와 같은 다른 편의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간단한 식음료는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사진으로 보는 그 시절, ‘울산’



2017 울산 민속 문화의 해 기념으로 지난 12월부터 울산박물관에서 ‘울산, 삶으로 미래를 품다’ 사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기증받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공업화를 전후한 울산의 옛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기획전시 제1부 ‘이전, 울산의 모습은 작은 농어촌 도시였던 울산’을 소개하고 있다. 1950~1960년대 방어진의 해녀, 웅기를 팔던 읍내 시장의 모습, 영화관의 모습이 눈에 띈다. 특히 옛 장수 사진에서는 철거덕 하는 가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제2부 ‘공업화와 광역시 승격’에서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당시의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963년 일본의 구보타 회사 소속 토목 기사로 울산공업단지 배관 공사를 하러 왔다가 사진을 남겨준 미소노 가즈오 씨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부산에서 자재를 하역하여 울산까지 가지고 오는 모습이라든지 거리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굉장히 흥미롭다. 사진을 오래도록 보관한 것도, 일본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기증해 준 것도 대단하다.

한편, 2부 전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 광역시 승격 과정이 담긴 영상이 다양한 기록 전시물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제3부 ‘삶, 사람, 그리고 미래’에서는 울산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추억을 공개한다. 초·중·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정겨운 사진, 축제 및 체육대회에 참가한 사진 등 일상의 모습이 담긴 생활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기증된 사진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부동에 사는 정월향 씨는 “초등학교 때 고적 퍼레이드를 했는데 저 영상에 제가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봤다”며, “재미있었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진 촬영이 흔하지 않던 시절, 누군가가 기증한 소중한 자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추억을 되살려준다. 오는 3월 초까지 열릴 사진전을 통해 옛 울산의 모습을 만나 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 삶으로 미래를 품다’ 사진 특별전

장소 울산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

기간 및 시간 3월 4일(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

추위 녹이는 따끈한 온천수, 이것이 바로 ‘힐링’!

아이와 노인, 성인의 체온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적절한 우리 몸의 온도는 36.5℃다.

겨울이 깊어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따뜻한 곳을 찾아 언 몸을 녹이려 한다.

그래서일까,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니 저절로 발걸음이 부산의 온천지구를 향한다.



‘천 년의 신비’, 동래온천

지금은 동래 스파시티로 알려진 동래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다.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동래온천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병자가 동래온천에서 몸을 씻으니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온천의 평균 온도가 61℃로, 그 열이 계란을 익힐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리를 다친 백학이 단 며칠 만에 거뜬히 날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본 절름발이 할머니가 백학을 따라 신비한 물에 다리를 담그니 이내 완쾌됐다는 ‘백학 전설’도 있다.

이곳의 온천수는 염소 성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약알칼리성의 식염천으로 신경통, 위장병, 부인병, 피부병, 아토피, 고

혈압,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온천장 주변에는 대형 스파월드인 허심청을 비롯해 30여개의 온천탕이 운영 중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 설비를 잘 갖췄다.

옛 것이 주는 낭만을 느껴보고 싶다면, 1967년 개업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만수탕을 추천한다. 2대째 운영 중인 만수탕은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온천탕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진성 여왕의 치료지’, 해운대온천

해운대온천은 구남별 저습지 갈대밭 가운데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웅덩이에서 온천물이 솟아나와 ‘구남온천’이라



이름 붙여졌다. 통일신라의 진성여왕도 이 온천수에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천연두를 앓았을 때 이 곳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해운대온천은 우리나라 유일의 임해 온천으로, 해수욕과 온천을 겸할 수 있다. 라듐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만성 류머티즘, 관절염, 신경통, 말초혈액 순환 장애, 요통, 근육통 등에 효과가 있다.

베니키아, 해운온천, 송도탕 등의 대형 온천탕이 있으며 해운대 주변 80여개의 여관, 호텔 등에서도 온천수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스파랜드, 파라다이스 호텔의 씨메르 온천은 보다 고급스러운 온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부산 국제 영화제 단골 고객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베스트 찜질방은 화창한 날엔 대마도가 보일 만큼 전망이 좋다.

발만 담가도, 피로 싹~ ‘무료’ 족욕탕

전신욕이 어렵다면, 10여분간 발이라도 담그며 피로를 풀어보자. 동래온천과 해운대온천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족욕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가는 여행객의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지만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소원이 동래온천에 발 담그기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인기는 부산역에서 동래온천장까지 바로 가는 기차를 개설할 정도였다고.

수온이 25℃ 이상이면 온천수로 인정 받지만, 동래온천은 천 년 전부터 평균 수온 60℃를 유지해왔다. 이 명성을 살려 동래온천 족욕탕에서는 40℃ 이상의 온천수 100톤이 용머리형의 조형물에서 쏟아져 나온다.

한편, ‘국내 100대 정원에 선정된 바 있는 해운대 구청 ‘열

린 정원’ 한 편에도 족욕탕이 마련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이 곳은 2015년 개장한 이래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소나무와 작은 연못 등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의 경치를 구경하며 족욕을 즐기다 보면,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동래온천 노천족탕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21

운영시간 11월~2월 오전 10시~오후 4시 / 3월~10월: 오전 10시~오후 5시

※ 매주 수·금요일, 동절기(1월), 하절기(7월 말~8월), 국경일, 우천 및 악천후 시 휴장

문의 ☎ 051) 550-6602

해운대온천 족욕탕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운영시간 11월~5월 오전 11시~ 오후 6시 / 6~10월: 오전 11시 ~ 오후 7시

※ 매주 월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 우천 및 악천후 시 휴장

문의 ☎ 051) 749-4161

전남 온천 여행도 계획하세요

영광 해수온천랜드

주소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50 영광해수온천랜드

운영시간 오전 6시 30분 ~ 오후 7시(주중) / 오전 6시 30분 ~ 오후 8시(주말)

※ 하절기 (7월~8월)에는 주말에만 운영

문의 ☎ 061) 353-9988

지리산 온천랜드

주소 구례군 산동면 로 261 지리산 온천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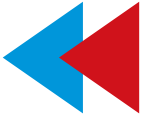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온천/찜질방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노천 온천 테마파크

주말 오전 7시~오후 10시 온천/찜질방

주말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노천 온천 테마파크

문의 ☎ 061) 780-7800



“설 연휴를 짜릿하게!” 동·서양의 영웅들이 맞붙다

블랙 팬서 (Black Panther)

장르 액션, 드라마, SF | 개봉일 2018년 2월 14일 (수) | 러닝타임 135분
감독 라이언 쿨러 | 출연 채드윅 보스만, 루피타 뇽, 앤디 서키스,
마틴 프리먼 등

줄거리 '시빌 워' 이후 와칸다의 왕위를 계승한 '티찰라(채드윅 보스만)', 와칸다에만 존재하는 최강의 희귀 금속 '비브라늄'과 왕좌를 노리는 숙적들의 음모로 전세계가 위협에 처하는데... '블랙 팬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볼거리 TOP3

- 01 마블 야심작, '마블의 가장 혁신적인 히어로' 탄생 예고
- 02 부산 액션신, 부산 촬영에 한글 등장까지~ 한국 팬心 저격
- 03 국왕의 정석, 와칸다의 국왕 '블랙 팬서'가 알려주는 지도자의 조건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2018년 마블 10주년의 포문을 여는 야심작 '블랙 팬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블랙 팬서'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등장한 동명의 흑인 히어로를 주인공 삼은 영화로,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 팬서'는 세계적인 영화 사이트 IMDb(인터넷무비데이터베이스)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영화 TOP 2'에 오른 것은 물론, 북미 최대 티켓 예매사이트인 판당고 내 '가장 기대되는 슈퍼 히어로 캐릭터 1위'로 선정되는 등 현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화젯거리다.

특히 이 영화는 부산에서 일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한국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겠다는 '블랙 팬서'와 함께 설 연휴 기분 좋은 통쾌함을 느껴보자.





새로 개봉하는 따끈한 신작 영화를
블로그 'hi,hhi'와 현대예술관에서 만나보세요.



홍부 : 글로 세상을 바꾼 자

장르 드라마 | 개봉일 2018년 2월 14일(수) | 러닝타임 105분 | 감독 조근현
출연 정우, 김주혁, 정진영, 정해인, 김원해 등

줄거리 어릴 적 헤어진 형 '놀부'를 찾고 있는 조선의 천재작가 '홍부'. 수소문 끝에 형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조혁'을 만나고,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조혁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 반면, 권세에 눈이 먼 조혁의 형, '조항리'의 야욕을 목격한 홍부는 전혀 다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아 '홍부전'을 완성한다. 이를 지켜보던 조항리는 그를 이용해 조선을 삼킬 음모를 계획하는데...

볼거리 TOP3

- 01 **故 김주혁의 유작**, 작품 속 그의 마지막 연기
- 02 **홍부전의 재해석**, 익숙한 듯 낯선 이야기로 신선함 UP!
- 03 **캐릭터 대열전**, 지도자·야심가·민란군 등 매력 만점 캐릭터 총출동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고전소설 '홍부전'의 탄생 비화를 파헤친다는 참신한 발상의 영화 '홍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가 2월 극장을 찾아온다. 영화 '홍부'는 기존 작품에 재해석을 가미한 허구의 이야기지만, 실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녹여내 보다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자랑한다. 세도정치로 힘을 잃은 왕 '헌종', 날로 피폐해져 간 백성의 삶 등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故 김주혁** 배우의 연기로 완성된,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홍부'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거기에 '헌종' 역의 정해인, 야심가 '조항리' 역의 정진영, 왕권을 노리는 '김응집' 역의 김원해, 홍부의 집필 보조제자 '선출' 역의 천우희 등 개성 만점 8인의 캐릭터들이 극에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는다. 새롭게 집필된 2세기 '홍부전'이 선사하는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연휴의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방어

‘고소+쫄깃’ 겨울의 진미(眞味)를 맛보다!

방어는 대표적인 붉은 살 생선으로 지방이 많고, 부위에 따라 다른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비타민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참치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지닌 방어. 제철 맛은 방어와 관련된 알쏭달쏭한 궁금증들을 풀어본다.

방어와 부시리는 같은 어종을 부르는 다른 말이다?

방어와 부시리는 둘 다 전갱이과의 어류로 생김새와 맛이 유사하지만 다른 어종이다. 다만 ‘겨울 방어, 여름 부시리’라는 말이 있듯, 겨울에는 기름기가 찰진 방어가 맛있고 여름에는 쫄득한 부시리가 맛있다.

방어와 부시리의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생선의 입꼬리 부분을 보는 것이다. 위턱의 끝이

날카롭게 각이 져 있다면 방어, 둥근 모양이면 부시리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방어는 전체적으로 청색빛이 많이 돌지만, 부시리는 몸통 가운데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며 지느러미 또한 노랗다.

또, 일부에서는 방어를 ‘히라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부시리’를 ‘히라마사’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표현이라 하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방어는 어느 때나 맛있다?

부시리가 아닌 제대로 된 방어를 골랐다면, 먹는 철이 중요하다.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봄과 여름에는 방어의 맛이 덜할뿐더러 '방어선충'이라 불리는 기생충이 발견된다고 한다.

방어는 적서 수온에 따라 활동지역을 이동하는 '회유성(回游性)' 어종으로, 수온이 오르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북상하다가 수온이 하강하기 시작하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남하한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극동에 있던 방어는 추운 겨울이 되면 동해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 마라도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다.

동해에서는 주로 9~10월에, 제주 연안에서는 11~2월에 방어가 많이 잡힌다. '방어'하면 '제주 모슬포'가 제일 유명하지만, '동해 거진항'과 '통영'도 방어 3대 산지로 유명하다. 또,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의 '방어진'도 예부터 방어가 많이 잡혀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니 흥미롭다.

한편, 방어는 겨울이 시작되어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살아남기 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최상급으로 치는 방어는 '겨울진꺀' 또는 '별미'로 불리며, 무게만 해도 무려 10kg이 넘는다.

맛이 좋은 겨울 방어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D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불포화지방산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 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 아울러 검붉은 색의 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좋다.

방어는 너무 크면 맛이 없다?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다른 어종과는 달리 방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다. 1kg 내외는 소방어, 2~4kg은 중방어, 5~8kg은 대방어, 8kg 이상은 특대방어로 구분하는데 크기가 클수록 기름이 많고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

소고기에서도 업진살, 살치살, 제비추리 등 고급으로 손꼽히는 특수부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방어에서도 목살(가마살), 배꼽살, 사잇살(속살), 볼살, 꼬릿살 등 특별한 맛을 자랑하



는 특수부위가 있다.

그 중에서 목에 있는 살이라 하여 '목살(가마살)'이라 부르는 부위는 옆 지느러미가 붙은 삼각형 모양의 단단한 근육인데, 살살 녹는 맛이 천하 일미다.

또한 배살 하단 면에 있는 내장을 감싼 단단한 근육을 '배꼽살'이라 하는데, 운동량이 많아 쫄깃하면서도 지방이 많아 고소하다. 최소 7~8kg급은 되어야 온전한 모양의 배꼽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귀한 부위로 알려져 있다.

TIP

·방어 맛있게 먹는 법



고소한 방어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새콤달콤하게 무쳐낸 미나리 무침이나 잘 익은 묵은지와 곁들여 먹으면 방어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다른 방어는 싹장을 콕 찍어 향긋한 깻잎에 싸서 먹어도 좋다. 또, 바삭하게 구운 뼈와 자투리 살을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 방어뼈 구이도 별미다.

·방어와 부시리의 구별법

: 방어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끝단이 거의 나란함

: 부시리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끝단의 차이가 큼

봄의 전령사 ‘매화’를 만나다

올 겨울 최강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하지만 봄에 들어서는 입춘(立春, 2월 4일),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 2월 19일)를 지나면 곧 완전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올 듯하다.

서리와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가 꽃망울마다 연신 봄을 재촉한다.

눈 속에 피는 꽃, ‘매화’

언 땅 위에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는 예부터 절개와 지조의 상징이었다. 옛 선비들은 매서운 겨울 바람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정원에 심어놓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기렸다. 작지만 청초한 꽃송이는 시나 그림의 소재로도 무척이나 사랑받았다.

매화는 장미과의 갈잎 중간기 나무의 꽃을 강조한 이름으로,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라 한다. 다른 나무보다 꽃이 일찍 피는 매실나무를 꽃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화괴(花魁)’라고도 부른다.

같은 꽃을 두고도 일찍 핀다 하여 ‘조매(早梅)’, 추운 날씨에 핀다 하여 ‘동매(冬梅)’, 눈 속에 핀다 하여 ‘설중매(雪中梅)’라 부른다. 또, 색에 따라 희면 ‘백매(白梅)’, 붉으면 ‘홍매(紅梅)’ 등 여러 가지 애칭을 가지고 있다.

매화꽃 정취 만끽하는 축제 열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봄을 느끼기 위해 양산에 위치한 원동 매화마을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매년 3월경 봄의 전령 매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원동매화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원동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동 지역은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데, 봄이면 지천에 만발한 매화꽃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푸른 낙동강변의 기차길을 따라 화사하게 핀 매화꽃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고, 가족 및 연인들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원동의 매화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쌍포매실다목적광장에서는 스태츄 마임(Statue Mime, 연극자가 석고나 도료를 입힌 의상을 입고 마임 동작을 해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게 함)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시간대별로 가수들이 '매화향 포크송'을 불러 축제를 더욱 흥겹게 한다.

또, 원동주말장터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매실엑기스, 장아찌, 미나리, 딸기 등을 무료로 시음하고 저렴하게 판매한다. 축제기간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임시주차장이 조성되고 원동역 열차가 증편되며 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낙동강·기차길 어우러져 매화꽃 '절경'

북적이는 곳이 부담스럽다면 '순매원'을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순매원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일찍 봄을 마중하려는 상춘객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들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장소다. 4년 전 KBS의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에서도 이곳을 촬영해 전국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잔잔하게 흐르는 낙동강과 순매원의 매화밭 사이를 기차가 지나가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낸다. 순매원의 주인인 김용구 씨는 14년째 순매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절경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넉넉한 마음인 것이다.

한편, 순매원에서도 매화 개화기에 맞춰 2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축제를 연다. 축제기간에는 국수와 파전, 막걸리, 떡볶이, 어묵 등 간단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어 별도의 간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눈이 내려앉은 듯 하얀 매화가 활짝 핀 나무 아래서 꽃 향기에 담뿍 취해 맛보는 국수는 정말이지 꿀맛일 듯하다. 이번 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원동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취재 정은주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달콤한 매화 향에 빠지는 초봄

제주 노리매 매화축제

2012년 3월 문을 연 제주 노리매 공원에서는 '매화향기 찾아 떠나는 여행(탐매행)'이라는 주제로 2월 한달 간 다양한 매화축제를 연다. 현재 봉오리가 피어 있는 상태라 하니 큰 강추위만 없다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피는 매화를 관람 할 수 있을 듯하다.

기간 2월 3일 ~ 3월 3일

주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0-15
노리매공원

문의 ☎ 064) 792-8211

서귀포 휴애리 매화축제

제주 서귀포의 또 다른 곳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도 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다. 한라산 끝자락 휴애리에 펼쳐진 하늘만큼 넓은 매화 세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보자. 봄을 깨우는 매화향이 가득하다.

기간 2월 14일 ~ 3월 18일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문의 ☎ 064) 732-2114

광양 매화축제

제21회를 맞이하는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가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섬진강 매화여행'을 주제로 9일간 진행된다. 작년에만 이 축제를 100만명이 넘게 찾았다고 하니 명실공히 최고의 매화축제다.

기간 3월 17일 ~ 3월 25일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지막길 55

문의 ☎ 061) 797-3337



양산 원동 매화축제

기간 3월 17일 ~ 3월 18일 주소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로 1477-40

문의 ☎ 055) 392-2547~8

가난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두 딸을 위해

아담한 체구의 수진 씨는 22살의 나이로 한국땅을 밟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맡는 타국의 흙내음은 낯설기만 했다.

아는 이가 없고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으로, 남편에게만 의지한 세월도 어언 10년.

고향에도 떠 있을 밤하늘의 겨울달은 시리도록 차가웠고, 희망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온 아내, 원인불명 통증 달고 살아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시집온 완수진 씨(32세)는 해바라기같이 자신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두 딸, 몸이 성찮은 남편과 함께 눈 앞에 닥친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지 걱정하는 것이 하루 일과다.

그녀의 몸이 채 이국에 적응하기도 전, 빠르게 바뀌는 계절과 냉담한 추위는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고, 원인 모를 통증들을 온몸에 안겼다. 고향서 온 지인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향수병을 앓고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지만, 유달리 체구가 작고 왜소한 수진씨에게는 더욱 힘겨운 나날이었다.

한국의 생활은 베트남과 많이 달랐다. 고향에서는 아침 식사로 보통 쌀국수 한 그릇을 밖에서 해결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집오니 하루 세끼 식사를 꼬박 챙기고 청소도 매일 해야 하는 등 집안 일이 많았다.

어깨 너머로 배워 이제는 밥도 익숙하게 해내고 시댁 김장도 돕는다. 한국어도 생각을 말하고 아이들을 만큼 늘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따라와 주질 못했다.

내과, 정형외과 등 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여 결국 신경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약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할라치면 또다시 몸져눕기가 다반사.



할 수 없이 집에서 부업으로 간단한 차량용 에어컨 부품 조립 등을 하고 있지만 워낙 단가가 낮아 돈이 되지 않는다.

구순구개열 앓는 남편, 가장 역할 어려워

남편 이태형 씨(43세)는 식당을 운영하신 어머니를 도와 울산과 경주 등지를 돌다가 결혼과 함께 남목에 정착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나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젓이 없어 큰 구멍만 자리하고 있는 데다 잇몸이 서로 틀어져 말하고 씹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백일이 채 되기 전에 고마운 동네 의원의 도움으로 안면기형을 바로 잡는 수술을 하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불과 2년 전까지 열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수술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체력도, 몸 속 장기들도 많이 망가지게 되었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바로 화장실로 가야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다 보니 몸에 늘 힘이 없다. 의사소통도 불편해 사회에서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그나마 친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자그마한 방앗간을 삼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어 받았지만 이 역시 몸이 따라주질 않아 접어야 했다. 일용노무직도 해봤지만 대화가 어렵다 보니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일생을 따라다닌 고난들은 불안과 불면증으로 이어져 약에 의지하고 있지만 내성 탓인지 그마저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재간둥이 두 딸만이 부부의 희망

슬하에 두 딸들은 연년생으로 여덟 살과 아홉 살이다. 첫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선천성 대동맥 판막증으로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병세를 살펴야 하며,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운동 등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둘째 역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손바닥, 발바닥의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나는 피부병을 겪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두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구김살 하나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다. 두 딸은 그



림도 곧잘 그리고 글 솜씨도 뛰어나다. 시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부상으로 큰 냉장고며 가구도 받아오는 등 벌써부터 살림밋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끼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위주라 한창 자랄 나이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요리사가 꿈이라는 둘째의 희망은 누구보다 현실적이다.

지난 해까지 단열이 전혀 안 되는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부대끼며 계절의 혹독한 변화를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겨울부터는 국가의 주거 지원을 받아 자그마한 빌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20만원의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안정된 공간에서 두 딸을 돌볼 수 있게 되어 큰 위안과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3년 동안 방앗간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지냈으나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보인다. 식구 모두 경쟁하듯 돌아가며 아픈 현실에 돈도 마음도 속수무책 무너진다.

아직 겨울은 많이 남았고 새벽의 여명은 기약이 없다. 몸과 마음이 실로 지친 이 부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웃의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트

도움계좌

신협 132-028-052178 (예금주 이태형)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질병이나 부상 없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건강수명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2018년을 기대하며, ‘수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본다.

‘기대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수명과 다른 건가요?

보통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기대수명이라는 말은 어떤 해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기대수명 앞에는 연도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의 남자의 기대수명이 79세라고 하는 말은 ‘2016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79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여자의 기대수명이 85세라고 하는 말은 ‘2016년에 태어난 여자 아이는 85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다른 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 나이까지 살아 남았으므로 지금 태어난 아이 보다는 기대수명이 더 길다는 말이지요.

2016년의 남자의 기대수명이 79세인데 내 나이가 이미 70세가 되었다면 9년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대략 84세 정도까지 산다고 예상합니다. 이미 80세라면 88세 정도까지 산다고 예상합니다.

‘평균수명’과 ‘최대수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수명이라고 하면 평균수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중에는 돌이 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100세까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모아서 평균을 내는 것이 평균수명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59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70세, 80세의 어르신이 안 계셨던 건 아니지요. 단지 그 당시에는 어릴 때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에 지금보다 기대수명이 낮았을 뿐입니다.

최대수명은 말 그대로 가장 오래 사는 경우인데 인간의 최대수명은 120세 정도이고, 지난 수만 년 동안 변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는 말은 평균수명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크게 세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유전적인 것은 건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환경적인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교육을 많이 받는 것,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들은 담배 안 피우기, 술 적당하게 마시기, 운동하기, 적당한 체중 유지하기, 잠 잘 자기, 아침 챙겨먹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략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고 결혼, 경제적 여유, 교육 등 유전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생활습관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건강수명이란 말 그대로,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80세까지 살았는데 70세에 중풍이 와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면 건강수명은 70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건강수명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거지요.

‘건강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암, 심장병, 중풍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인데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앞에서 말씀 드린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이 암과 심장병,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일찍 발견만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기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발견된 탓이 큼니다.

또한 심장병과 중풍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이 아주 잘 짜여 있어서 그것만 받으셔도 웬만한 병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꼭 받으도록 하십시오.

글 정태홍 교수(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화가 풀리면 | 인생도 풀려요~!

직장인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 '화'.
가슴에 꽂히고 있자니 화병이 날 것만 같고, 그렇다고 속 시원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에게 똑똑하게 화 내는 기술을 소개한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동이 효율적이지 않다’ 등의 이유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규칙에 상대방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법과 규칙을 상대방이 잘 지켜주면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규칙에 나는 부합되는지, 또 내가 세운 규칙에 무조건 상대방을 맞추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화’는 피해야 할 것도 억눌러야 할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자신의 의견을 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기술

1. 화내기 전,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 **문제의 중요성** : 이 문제가 화를 낼 만큼 정말 내게 중요한가.
- **상황의 적절성** :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 **변화 가능성** : 화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 **가치** : 다른 이와 나 자신의 욕구를 균형 있게 고려할 때, 화낼 가치가 있는가.

2. 감정을 다스리는 호흡법



· 쿵바카 호흡법 따라 하기

인도에서 대대로 내려온다는 ‘쿵바카 호흡법’은 뜨거운 기운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10~20회 반복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 오감 자극하기

집이나 사무실에서의 일상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자연을 느껴 봅시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이 나 고통은 한 단계 낮아지고 건강한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 될 것입니다.



· 눈동자 운동하기

눈을 감은 채 눈동자를 상하좌우 사방팔방으로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봅시다. 눈도 머리도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음악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시다. 이보다 간단하면서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을 것입니다.

똑똑하게 화내는 기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도통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똑똑하게 ‘화내는 기술’을 배워봅시다.

1. 상황 평가하기

‘대체 왜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자신이 화가 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무엇을 바로 잡을지 명확해집니다.

2. 극단적인 표현 삼가기

‘항상’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도’와 같은 표현은 삼갑시다.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ex)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X) “아무도 너처럼은 안 하겠다.” (X)

3. 구체적인 예시 들기

화가 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효과적입니다.

ex)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 (X)

“오늘 집에 돌아왔더니 당신이 먹고 난 음식이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어. 그 주변으로 날벌레가 날아다니는걸 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O)

4. 앞으로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상대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 “앞으로는 음식을 먹고 나서 접시를 바로 씻었으면 좋겠어. 그럼 벌레도 안 꼬일 거고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거 같아.” (O)

이 세상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화는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보증하는 방어 수단이자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어떻게 다루고 표출하는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화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나 자신과의 대화’를 꼽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자신과의 소통을 먼저 시작해보세요. 자신을 어루만지고 이해할 때만 이 분노를 긍정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글 서상숙 상담사(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탁한 집안 공기가 건강을 위협한다!

매일 쓰고 닦는 우리 집 안 공기가 깨끗할까?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실외 공기가 깨끗할까? 답은, 실외 공기가 더 깨끗하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창문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실내공기는 오염된다. 미세먼지는 물론 건조한 기후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나빠진다.

바깥보다 10배 오염된 집안 공기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과거에 비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비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건강 관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주택은 열린 공간 구조로 방문만 열어도 바깥공기 유입이 원활했다. 아랫목과 윗목이 있어서 문을 열지 않아도 기온 차이로 공기가 순환하는 등 자연환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의 주된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밀폐된 구조여서 방문을 연다 해도 환기가 되지 않고 한 공간에 공기가 머무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연간 최대 6백만명인데 실내 공기 오염에 따른 사망자는 280만명에 이르고,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1천배 가까이 높다.

그런데, 집안의 공기는 외부의 요인들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집안 구석구석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들이 배출되어 쌓인다. 벽지, 가구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카펫, 커튼, 소파 등 세탁이 어려운 생활용품에서 집먼지 진드기 등 각종 세균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출된 유해물질들은 몸 속으로 침투해 기침부터 비염, 기관지염, 독감, 천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겨울철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안 공간별 실내 공기를 위협하는 요인들

- ① 현관**
 - 외출했다 돌아올 때 함께 들어오는 먼지로 인해 현관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 ② 침실**
 - 땀이 베는 침대와 침구류에는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 집먼지 진드기가 많다.
 - 옷장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정전기 예방을 위해 사용한 섬유 유연제에서 계면활성제와 인공향료 등이 눈과 호흡기를 자극한다. 드라이 클리닝한 옷에는 증발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남아있다.
 - 난방 설정 온도가 높고 난방 효율이 높을수록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킨다.
- ③ 아이방**
 - 고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에는 중금속과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 책상, 책장, 의자 등의 가구에서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이 나온다.





④ 거실

-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공기 중의 먼지가 10배 증가한다.
- 사람이 천으로 된 소파에 앉을 때마다 먼지 구름이 방출된다.
- 자주 쓰지 않는 장식품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는 폐와 기관지를 자극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⑤ 주방

- 음식을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진다.
- 구이나 튀김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동시에 배출된다.
-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에는 곰팡이와 각종 세균 등 부유 미생물이 가득하다.

⑥ 화장실

-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에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치아염소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다.
- 물을 사용할 때 휘발성이 강한 염소가 발생한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 염소가 기체 상태의 염소 화합물질로 바뀌어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데, 거울에는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더욱 위험하다.

출더라도 반드시 환기해야...

환기를 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농도가 계속 짙어지기 때문에 출더라도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오전, 오후로 나눠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정해진 공기를 배출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너무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되도록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는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해서 실내오염 물질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는 '1330 환기생기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다.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한 실내 적정 온도는 18~21도, 습도는 40%로 유지한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일 경우,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므로 적정 온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피한다.

숯을 활용하거나 공기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숯은 공기 중의 수분이 많을 땀 빨아들이고 많을 땀 내뿜는 성질이 있어 가습과 제습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울러 침실에는 밤의 공기가 좋아지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호접란 등을, 아이들 공부방에는 팔손이 나무나 로즈마리를 키우면 적합하다. 거실에는 아이비, 인도고무나무를,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연소가스에 효과적인 스파티필름, 스킨답서스 등을 기르는 것을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고기를 굽게 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되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조리가 끝난 후에도 30분은 더 레인지 후드를 돌려야 한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면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실내 가구 등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혹은 없는 자재나 통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동심으로 떠나자!

밤새 내린 흰 눈이 세상의 풍경을 설국으로 바꿔놓으면, 나뭇가지 위에도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화사한 눈꽃이 피어난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쌓인 눈을 제대로 만끽하기 어려운 법. 살짝 내린 눈에도 썰매부터 찾는 아이들을 데리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 특별해지는 눈꽃과 얼음의 세계로 떠나보자.

태백산 눈 축제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태백산맥의 상징, ‘태백산’은 거대한 능선과 봉우리로 이루어져 웅장함을 자랑한다. 특히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을 간다는 산 정상의 주목 군락지는 양갈진 바람에도 우뚝 선 나무들이 하얗게 눈꽃을 피워 신비롭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대표 눈 축제로 자리매김한 ‘태백산 눈 축제’가 올해로 제 24회를 맞았다. 태백산 아래에 있는 당골 광장에서 시작되는 ‘눈 사랑 환희의 축제장’은 초대형 눈 조각들이 들어서고 ‘마장공터 아래 광장’은 재미있는 눈 조각들로 꾸며진다.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눈 조각들이 만들어낸 얼음나라가 태백산 눈 축제의 핵심이다.

축제기간 동안 초대형 눈 조각이 태백산과 태백문화광장, ‘태양의 후예’ 세트장 등 시내 곳곳에 전시되고 시민·전국대학생들의 눈 조각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글루 카페, 눈 미끄럼틀, 별빛 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기간 2월 11일(일)까지

주소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68(소도동)

입장료 무료(단, 각종 별도체험은 유료)

문의 ☎ 033) 550-2085

대관령 눈꽃축제

대관령 일대는 겨울이면 1미터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예부터 이곳 주민들은 설피(신발 바닥에 덧대어 신는 물건)와 발구(마소에 매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 등을 개발해 사용했다. 이런 독특한 겨울 생활 문화를 전통으로 발전시키고 '눈 마을'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관령 고원에서는 1993년부터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념하며 '평창송어축제'와 합쳐 축제를 여는 등 한층 풍부해진 즐길 거리와 체험 이벤트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세계명작동화를 주제로 다양한 눈 조각들이 전시되고, 저녁에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쇼(Media Facade Show, 건축물 외면에 LED 조명을 설치해 영상 구현)'가 열린다.

이색적인 국제 알몸 마라톤 대회와 대관령 눈꽃 등반, 백일장, 눈꽃열차, 대형 눈 썰매, 봅슬레이, 소 발구 타기, 설피 신고 걷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간 2월 7일(수) ~ 2월 22일(목)

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35-6

입장료 종합권 1만5천원(주중) / 1만7천원(주말) 등

문의 ☎ 033) 335-3995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남부 지방의 유일한 겨울 눈 축제로 꼽히는 '제7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리산 바래봉 허브밸리와 바래봉 일원에서 지난 12월 30일부터 열리고 있다.

겨울·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눈썰매, 바래봉 눈꽃 등반대회, 이글루 체험장, 눈 조각 조형물전시 등 각종 체험행사가 운영돼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특히 120미터의 긴 눈썰매장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체험장에서 구워먹는 노란 군고구마는 한 겨울의 달콤함을 맛보게 한다.

한편, 눈꽃축제가 열리는 지리산 바래봉은 풍부한 적설량을 자랑하며 눈이 잘 녹지 않아 은빛 설원과 눈꽃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기간 2월 11일(일)까지

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4

입장료 성인·소인 7천원 동일

문의 ☎ 063) 635-0301

명품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

칠갑산 산기슭에 자리 잡아 '알프스 마을'로도 불리는 충청도 청양군 정산면에서 지난 12월 23일부터 '얼음 분수 축제'를 열고 있다.

이곳은 얼음 조형으로 알프스 성과 동화 속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아 '겨울 왕국'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축제라 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어 얼음분수, 얼음동굴, 눈 조각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얼음썰매와 봅슬레이, 빙어낚시와 쥘트랙, 승마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얼음을 장식한 100만개의 조명은 환상적인 빛을 내뿜으며 칠갑산 산골마을 겨울 풍경을 화려한 무대로 수놓는다.



기간 2월 18일(일)까지

장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175-11

입장료 썰매이용권 성인 1만5천원 소인 1만3천원 등

문의 ☎ 041) 942-0797~8

정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PyeongChang 2018

“하나된——열정, 이제는——평창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스포츠는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각 종목 및 경기규칙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올림픽의 재미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즐거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알아보자.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월 9일 개막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여정에 들어간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나라가 됐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이러한 기록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 총 4개국에 불과하다.

평창올림픽은 평창을 비롯해 정선, 강릉 등 강원도 3개의 도시에서 진행된다. 설상 종목은 평창 군과 정선군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에서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은 스키, 보드 등 설상 7개 종목,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5개 종목, 봅슬레이, 루지 등 슬라이딩(썰매) 3개 종목 등 15개 종목이 있으며 남/녀, 단/장거리 등 세부 종목까지 합하면 모두 102개가 된다.

이 밖에 스노보드에 빅에어, 스피드 스케이팅에 매스스타트 등 신설종목이 생겼으며 컬링과 알파인스키에는 혼성종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대회라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종합 5위(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 은빛 설원에서 펼쳐질 여러 종목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 종목 소개

설상(雪上)

스키는 기능과 형태에 따라 알파인 스키(Alpine Ski)와 노르딕 스키(Nordic Ski)로 나뉜다. 알파인 스키는 알프스지방에서 발달한 산악 스키로 고산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유용하도록 뒤꿈치가 고정돼 있어 활강 및 회전기술에 적합하다.

노르딕 스키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스칸디나비아반도) 지역에서 발달한 스키로 환경사에서 이동수단으로 발전했으며 뛰거나 걷기에 편하도록 뒤꿈치가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



알파인스키

뒤꿈치가 고정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경사도(슬로프)를 내려오는 경기다. 속도와 기술에 따라 활강, 회전, 대회전, 복합 등 세부종목으로 나뉜다.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이 경사도를 활강하면서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는 경기다. 일반 스키와 달리 백플립, 트위스트 등 화려한 기술을 볼 수 있어 '설원의 서커스'라 불린다.



크로스컨트리

눈 쌓인 들판을 달려 빠른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경기다. 경기 코스는 오르막, 평지, 내리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목에 따라 짧게는 1km에서 길게는 50km 구간이 있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에 사격이 결합된 경기다. 선수들은 총을 맨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코스)를 지나 정해진 사격장에서 엎드리거나 서서 사격한다. 스키 거리의 시간과 사격의 정확성에 의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스키점프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활강하여 내려오는 경기다. 활강하며 비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스키 경기의 '꽃'이라고 불린다. 비행거리, 비행자세, 착지 등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노르디 복합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를 합친 경기다. 선수들은 스키점프를 한 뒤 결과에 따라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부터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출발한다.



스노보드

설상 종목 중 유일하게 보드를 이용해 슬로프를 질주하는 종목이다. 평행대회전과 스노보드 크로스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승리하며, 나머지 경기는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평가한다. 이번 올림픽부터 세부 종목으로 빅에어(BA)가 추가됐다.

빙상(氷上)

빙상 종목은 한국 대표팀의 전통적인 '메달밭'이다. 역대 수확한 26개의 금메달 가운데 21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밖에도 2014 소치올림픽 때 관심을 받았던 컬링,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을 차준환, 최다빈의 피겨스케이팅 등 메달을 기대할만한 종목이 많다.



컬링

4인이 한 팀이 되어 번갈아 가며 둥근 돌(Curling Stone)을 던져, 표적(하우스)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투구자 외 선수는 돌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솔을 이용해 진로와 속도를 조절한다.



피겨스케이팅

음악에 맞춰 빙판 위에서 다양한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다. 기본 기술에는 악셀, 스파이럴, 스핀, 이나바우어 등이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트를 신은 2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400m의 아이스링크 트랙 위에서 속도를 겨루는 경기다. 2명의 선수는 인코스과 아웃코스를 교차하며 활주하고, 두 선수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 인코스 주자가 실격처리 된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400m 트랙에서 경기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 비해 짧은 트랙(111.12m)에서 경기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나 줄여서 쇼트트랙이라 칭한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위로 우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테크닉과 순발력이 요구된다.



아이스 하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상대방의 골대에 펙(공)을 넣어 득점이 많이 하는 팀이 승리한다. 팀은 3명의 공격수, 2명의 수비수, 1명의 골키퍼로 구성되며, '링크'라고 불리는 폐쇄된 빙면에서 진행된다.





슬라이딩(썰매)

동계올림픽 슬라이딩 종목은 모양과 타는 방법에 따라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으로 나뉘지만, 세 종목 모두 같은 경기장에 펼쳐진다. 특히 슬라이딩 종목들은 '썰매 불모지'인 한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량이 급성장해 사상 첫 메달 획득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봅슬레이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다.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라 박진감이 넘치며, 활주 시 압력은 중력의 4배, 평균 시속은 135km 정도다.



루지

발을 전방으로 향한 자세로 누워 소형 썰매를 타고 1km~1.5km를 활주하는 경기다. 최고시속은 약 140km에 달할 정도며, 1천분의 1초까지 계측한다.



스켈레톤

머리를 앞에 두고 엎드린 자세로 어깨, 무릎을 이용해 썰매를 조종하며 경사진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경기다. 위험성 때문에 정식종목에서 제외됐으나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블로그 'hi,hi'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손님 맞이에 나선 씨마크호텔을 만나보세요.



입장권 판매

입장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을 비롯해 인천/김포공항, 주요 기차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회기간 중에는 경기장 부근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는 비자카드 또는 현금만 가능하다.

가격은 종목 및 예선, 4강, 결승에 따라 상이하며, 실상의 경우 가장 저렴한 2만원부터, 빙상 인기종목의 경우 90만원까지 한다.

한편, 개회 및 폐회식 입장권은 일반 경기보다 비싼 편인데, 개회식 A석 기준 150만원이다.

주요대회 일정

2월 9일(금)	개회식 오후 8시~10시
2월 10일(토)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 - 첫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경기
2월 12일(월)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최다빈, 김하늘) 오전 10시
2월 13일(화)	쇼트트랙 여자 500m (심석희, 최민정) 오후 7시
2월 14일(수)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 한국vs일본 오후 4시 40분
2월 16일(금)	스켈레톤 남자 (윤성빈) 오전 9시 30분
2월 17일(토)	쇼트트랙 여자 1500m, 남자 1000m 오후 7시
2월 18일(일)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이상화) 오후 7시
2월 19일(월)	봅슬레이 남자 2인 (원윤종, 서영우) 오후 8시
2월 20일(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등) 오후 7시
2월 21일(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남자 팀추월 오후 8시
2월 22일(목)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오후 7시
2월 22일(목)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이승훈, 김보름) 오후 8시

씨마크호텔을 통째로 예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씨마크호텔이 통째로 예약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다.

평창올림픽 취재·제작에 2천400명을 동원한 NBC는 개별 투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마크호텔 전체(총 객실 150개)를 빌렸다고 한다.

이에 씨마크호텔은 외국인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림픽 기간 동안 온돌방엔 모두 침대를 들여놓았으며, 올림픽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위성시설을 설치했다.

“세계적 잔치에 작은 힘 보탭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축제다.

올해는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남북한 소통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활약하고, 이어지는 동계패럴림픽(Paralympic)에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사우 부인이 있다고 하여 만나 보았다.



국제적 경사(慶事)에 손님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수 차례 요청 끝에 취재에 응한 이미희 씨(52세)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우리 회사 식구로서, 좋은 소식을 나누면 사우들이 조금이나마 웃으며 힘을 내고, 다가올 평창올림픽을 더 많이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작년 11월 16일에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다. 길가에 길게 늘어선 동구 주민들의 환호 속에 성화를 옮기며, 마음이 벅찼단다. 성화의 불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춰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활활 타오르는 성화봉송이 지나갈 때마다 함께 지켜보던 주민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고.

그 때를 회상하며 이미희 씨는 “세상에는

어려움을 이겨낸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탈한 개최와 봉송 주자들의 한결같은 사연들이 모두 좋은 결실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희 씨는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Paralympic)에도 봉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실 자원봉사를 지원했을 때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합격되리라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차에 탈락 합격하고 2차 면접도 통과하여 동계패럴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성화봉송, 자원봉사 교육, 평창으로 떠날 채비까지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그녀는 패럴림픽 개최 기간보다 닷새 먼저 ‘관중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릉하키센터에서 인기가 많은 빙상종목이 주로 열리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관중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희 씨와 같은 봉사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다.

부부가 함께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 나서

한편, 이미희 씨에게 봉사활동은 자연스런 일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고,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적응을 돕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다문화 가족들이 쉽사리 알아보기 힘든, 지역의 생활정보나 민



원사항을 챙겨주고 통역을 해주는 등 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놀란 점이 있었다. 남편인 이병길 부장(55세, 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도 동계패럴림픽 봉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약 열흘간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여 봉사에 매진하기로 했다는데, 여간 큰 결심이 아닌 듯 싶다.

이미희 씨는 “우리가 집안에서 잔치가 있어도 경사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일손을 돕는데, 나라의 큰 경사가 생겼으니 우리 부부가 뭐든 돕고 싶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희 씨는 현대중공업 가족

들이 장애인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는 패럴림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줬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일반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이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해 패럴림픽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며, “설상경기, 빙상 경기 할 것 없이 장애인들의 열정이 분출되는 모든 경기에 끝까지 우리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 인류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우리 사우들 모두 힘찬 응원을 보내보자.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기간 3월 9일(금) ~ 18일(일)

규모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 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 80개 경기



시무식 갖고 새해 출발

현대중공업은 새해 첫 근무일이었던 1월 3일 시무식을 갖고 2018년 힘찬 출발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 체육관에서 강환구 사장과 박근태 지부장을 비롯해 2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물량이 더욱 줄어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당연한 어려움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안전결의대회도 함께 열려, 노사 결의자 대표가 안전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35년 연속 '세계우수선박' 선정

현대중공업이 35년 연속으로 '세계우수선박'을 배출했다.

영국 조선해양 전문지 '네이벌 아키텍트(Naval Architect)'는 최근 발행된 신년호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1천800입방미터급 LNG선인 오가르타(Ougarta)호 등 선박 4척을 세계우수선박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박들은 모두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3년 7만천톤급 벌크선인 넬바나(Nelvana)호가 처음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5척의 선박이 세계우수선박에 선정됐다.

배기가스 세정설비 개발

현대중공업이 선박용 엔진의 '배기가스 세정설비(Scrubber)'를 자체 개발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배기가스 세정설비는 선박 엔진의 배기가스를 물로 세척해 황산화물과 염산, 불산 등의 유해물질을 최대 99%까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이 설비를 장착하면 오는 2020년부터 선박용 연료에서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국제해사기구(MO)의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Marpol Annex VI)'을 충족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세정설비는 기존의 유럽 업체들의 제품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일체형 설계를 통해 크기를 약 35% 줄여, 설치가 용이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조선 3사 협력사 신년회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협력회사들이 조선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상생 협력의 각오를 다졌다.

그룹 조선 3사는 1월 19일 호텔현대경주에서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과 현대미포조선 한영석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윤문군 사장을 비롯해 250여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강환구 사장은 올해 그룹 경영전략을 발표하며, “조선시장 침체 상황에서 환율, 원자재 등 대부분의 여건까지 불리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협력회사가 함께 노력해 이 위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서는 52개 우수 협력회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제다사우스 발전소 최종 인도

현대중공업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SEC)으로부터 '제다사우스(Jeddah South) 화력발전소의 최종승인증명서(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았다.

지난 2012년 수주한 이 발전소는 사우디 최대 항구 도시인 제다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안에 건설됐으며, 약 2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천640MW급 전력을 생산한다.

FAC는 계약 조건 100% 달성에 따른 계약 종료를 의미하는데, EPC 공사에서 완공 직후 FAC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공사 수행에 대한 발주처의 높은 신뢰와 만족도가 바탕이 됐다.



일렉트릭, 홍보관 새 단장

현대일렉트릭은 1월 8일(월) 울산공장 본관에서 주영길 사장 등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현대일렉트릭 홍보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현대일렉트릭 본관 1층에 위치한 80평 규모의 홍보관은 접견실, 제품 전시관, 디지털 체험관,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및 방문객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더불어 현대일렉트릭의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인 '인티그리(TEGRITY)'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제품 전시관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각종 에너지 솔루션을 체험하고, 스마트 배전반 등 첨단 제품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중연료 발전설비 인니 첫 수출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중연료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네시아전력공사와 4.1MW급 이중연료 힘센엔진 20여대 및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연료 엔진은 디젤연료와 천연가스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 유해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엔진으로, 최근 가스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설비는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치한 7개 발전소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협력사와 목표 달성 한마음

현대건설기계가 1월 11일 호텔현대울산에서 협력사협의회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기영 사장과 협력사협의회 문복만 회장 등 44개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공기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립법인 출범 후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준 협력회사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날 신년회에서 지난해 품질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올해 경영계획과 품질·구매 주요 정책 등을 공유했으며, 올해 글로벌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들과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2018 경영목표달성 결의대회’ 열려

회사가 처한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임원·부서장들의 결의대회가 지난 6일 열렸다.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전임원 및 부서장, 협력사 대표 등 120여명은 이날 울주군 대운산을 함께 오르며 위기극복 의지를 다졌다.

한영석 사장은 참석한 임원 및 부서장들에게 “올해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더로서 솔선수범과 책임감을 가질 것과 사수들과의 소통도 더욱 넓혀 나갈 것”을 당부했다.



조선설계부문, 2017년 업무실적 발표

조선설계부문 2017년도 업무실적 발표회가 지난 9일 신관 설계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조선설계부문 임원 및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올해 부문 경영목표인 ▲원가절감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설계공정 및 품질지수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 QDC 혁신활동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HYDRO TEST 적용구역 축소를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주제로 선체설계부가 ‘금상’을 수상한 가운데, 선장설계부가 ‘은상’, 배관설계부가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새해 첫 선박 인도 ‘희망찬 뱃고동’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4일 2018년 새해 첫 선박을 인도하며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인도된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모나코 스크리포(SCORPIO)사로부터 수주한 5만1천톤급 PC선 8척 중 7번째 선박이다.

별도의 명명식 없이 선주사에 의해 ‘STI 에스레스(ESLES) II’호로 이름 붙여진 이 선박은 길이 183.3미터, 너비 32.2미터, 높이 19.1미터의 제원을 갖췄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2018년 한 해 동안 PC선 26척, LPG운반선 8척, LEG운반선 4척, LNG병커링선 1척, 로-팩스 1척, RO-RO선 1척, 벌크선 1척 등 모두 42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이다.



2017년 개선제안활동 ‘활발’

현대미포조선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중인 개선제안제도에 지난해 모두 4천99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효과 금액은 약 235억원이며, 목표 216억원 대비 109.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 최대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1등급 개선 제안자도 1명(사업기획부 문성화 과장)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QDC 혁신활동은 전사 247팀이 1천821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효과 금액은 약 215억원이며, 목표 154억원 대비 139.6%를 달성했다.

임원, 부서장 위기극복·무재해 달성 기원 산행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월 6일 무안 승달산에서 '2018년 위기 극복 및 무재해 기원 산행'을 실시했다.

임원과 부서장 및 사내 협력사 대표 등 120여명은 승달산 정상을 오르며 2018년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승달산 정상에서는 수주 대박과 무재해 달성 등 새해 소망을 담은 쪽지를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윤문균 사장은 "2018년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2017년 선주선급 품질 고객만족도 '양호'

현대삼호중공업에 상주하고 있는 선주와 선급들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품질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품질경영부가 작년 12월 5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양호'를 의미하는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선주는 3.6점을, 선급은 4.1점을 취 선급평가가 선주보다 다소 높았으며, 분야별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주관한 품질경영부는 만족도 하위 항목 12개를 선정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케 한 뒤, 1월 말까지 조치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선주 9개사에서 59명, 선급 5개사에서 35명 등 총 94명이 참여해 약 63%의 응답률을 보였다.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 2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1월 9일 새해 들어 첫 선박을 수주하며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기분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날 그리스 센트럴 마레(CENTRAL MARE)사와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옵션 2척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

선번이 S874~5로 부여된 이들 선박은 올해 8월과 9월 착공해 11월과 12월 옹골거치, 내년 1월과 3월 진수를 거쳐 4월과 5월에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 수주선박과 유사한 15만9천톤급 원유운반선



LNG호선 인명 대피 훈련

현대삼호중공업은 LNG호선 화재발생을 가상한 인명대피 훈련을 지난 1월 17일 실시했다.

2도크에서 건조중인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운반선 S856호선에서 화재를 알리는 신호가 있자 비상벨과 호루라기 등을 이용한 화재 전파와 함께 초기 진화와 인명 대피가 시작됐다.

LNG선과 같은 특수선의 경우 밀폐공간이 많아 화재 발견이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치명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면 표연 부장은 강평을 통해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작업하는 습관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훈련에 진지한 자세로 참가해준 작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콜센터 품질지수 1위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전화예약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콜센터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총 42개 업종, 177개 회사와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이 △고객 문의에 답변하는 적극성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성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콜센터품질지수는 ARS 편의성, 상담환경, 전문성, 상담 태도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7개 요소, 38개 평가항목으로 분류해 종합 평가한다.



울산대학교병원

특수건강검진기관 우수기관 선정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 직업환경보건센터가 1월 1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206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분석능력 △진단결과·판정 신뢰도 △시설·장비 △보유인력의 교육·능력 개발 등 4개 부문, 7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이 총 4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각종 유해인자(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만 시행된다.



울산대학교

예비대학생 프로그램 운영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제관에서 수시모집 합격자 150명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 캠프 행사인 '나는 대학생이다'를 개최했다.

울산대학교는 예비 대학생에게 △선배가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한 밀착은 무엇인가 △신입생들의 각오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특히, '선배가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서는 예비 신입생들이 재학생 선배의 경험담을 들으며 캠퍼스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과학대학교

마키토 그룹과 산학협력 협약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1월 4일 동부캠퍼스 행정본관에서 호주의 전문외식 기업인 마키토 그룹(Makimoto Group)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울산과학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가 마키토 그룹과 해외 취업에 관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재학생들의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상호 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마키토 그룹은 지난 2015년 호주 타리(Taree) 지역에 첫 매장을 연 이후 지금까지 총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16년 한식전문 김치앤코(Kimchi&Co)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한식·일식 전문회사로서 호주 외식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노인 의료복지시설 봉사

하이투자증권(대표: 주익수)이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들과 함께 1월 17일 제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사라의 집에서 '일일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16명의 신입사원들은 사라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친근한 말벗이 되어 주고, 배식 지원, 시설 주변 청소를 실시한데 이어 장기자랑 공연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자세를 체험하며 동료와의 협업 역량을 증진시키고, 사회 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E&T·현대중공업터보기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현대E&T(대표이사: 심왕보)가 1월 13일 마골산(울산 동구) 일원에서 '2018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왕보 대표이사와 직책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술경쟁력 강화 △내실 경영 △고객 만족 △신뢰와 화합 등의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올해 매출목표 달성과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앞서 1월 6일에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대표이사: 심화영)가 문수산(울산 울주군) 일원에서 직책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환일식 / Colleen Pinski

“금환일식에 둘러싸여 일몰을 바라보는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종교, 성별, 인종을 벗어나 누구든 이 사진을 보면 ‘세상 저 편’과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대자연, 동식물, 그리고 사람

매년 100개국 이상, 수십만 명의 참가자를 배출하는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포토 콘테스트’의 역대 수상작들이 서울과 대구를 이어 울산 현대예술관을 찾아온다. 역대 수상작 중 엄선된 100여 점의 작품을 다룬 이번 전시는 경이로운 대자연, 흥미로운 동식물, 아름다운 인간의 삶에 대한 따뜻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 전시 미리보기

Section 1. NATURE, 경이로운 대자연



“자연을 보라.
그리고 자연을 배우라.
자연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한다.” - 루소

—
오로라 아래에서 카누를 타다
/ Gary Fiedler

Section 2. ANIMALS, 흥미로운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능이다.” - 찰스 다윈

—
또 다른 시각
/ Kristina Bucealchi

Section 3. HUMAN, 아름다운 인간의 삶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 조지 무어

—
나의 딸, 한나 / Amy Hand
“이 어린아이는 제 딸 한나입니다.
저는 한나의 엄마로서, 그녀의 영혼을 찍
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람정보

일시 3월 4일(일)까지

※ 입장마감 저녁 7시, 매주 월 휴관

장소 현대예술관 미술관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세계가 주목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세계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작은 강력 발전기', '스펙터클한 가수', '완벽한 콜로라투라(Coloratura)' 등의 찬사를 받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으로 떠오른 '캐슬린 김'. 그녀가 오는 2월 현대예술관을 찾아 독보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007년 오페라 '파가로의 결혼'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데뷔,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그녀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2017년 11월 국립오페라단 '리골레토', 12월 '라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 클래식 팬들에게 강렬한 추억을 남겼다.

캐슬린 김 (Kathleen Kim)

- 서울 출생,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 맨해튼 음대와 동대학원 졸업
- 입상 경력 : 미국 설리번 재단 상, 마리오 란자 콩쿠르 입상, 매캘리스터 상 파이널리스트, 리더크란츠 콩쿠르 외 다수 입상
- 200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 활동 중
- 2015년 한양대학교 부교수 취임, 현재까지 활동하며 후진 양성

출연진



조병익(바리톤)



박종호(기타)



최요한(피아노)

공연정보

일시 2월 23일(금) 저녁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매력 만점, 기타의 세계로!

요즘엔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악기 배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타는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해, 최근에는 취미이자 장기로 기타 연주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한마음회관에 모이고 있다.

1:1 지도로 초보자도 쉽게 배워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한마음회관 음악실에서는 무료로 통기타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개인 기타가 없는 수강생들도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 수강생의 80~90%가 기타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임을 고려해 교재도 수준별로 준비돼 있다.

이 강좌는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고, 수업시간을 꼭 맞춰서 오고 갈 필요가 없어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인지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김지운 강사(43세)는 “혼자서 수업에 참석해도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높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개인 연습 중간에 김 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연습을 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김강사가

옆에서 함께 연주를 해준다.

기타를 잡는 손 위치부터 자세까지 세심하게 교정해줘 수강생들은 악보가 어려워도, 연주가 잘되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는 초보자가 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김 강사는 “기타 실력은 개인의 재능과 연습시간에 따라 몇 주일에서 수개월, 수년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대답하기가 어렵다”며, “연주하고 싶은 곡 등 목표가 뚜렷해야 기타를 더 빨리 배운다”고 대답했다.

한편, 2년째 기타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는 김영준 씨(63세, (주)덕문물류)는 “기타는 60대에 들어선 나의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며, “처음 기타를 배울 때는 생각처럼 실력이 금방 늘지 않고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혀 힘들었지만, 강사님이 옆에서 이끌어 준 덕분에 재미있고 보람차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드 하나하나, 악보를 살펴가며 연습에 열중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사



못 진지하다. 매주 수요일 단 1차례씩만 열리는 수업인 만큼 수강생들은 하나라도 더 열심히 배우고자 분주하다. 수강생들이 각기 다른 곡을 연주하는 수업 현장은 마치 앙상블(Ensemble) 콘서트에 온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기타 연주로 나도 분위기 메이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멋진 기타 연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인기 뮤지션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기타 강좌를 3년째 수강중인 심재은 씨(54세, 울산 동구 전하동)도 주변지인들이 기타 연주를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데 기타만한 게 없다”며, “기타를 배우고 장기자랑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며 두고 간 기타로 4주째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는 박종태(54세, ABS 미국선급협회) 씨도 기타를 배우며 대학시절의 로망과 낭만을 되살리고 있다.



“지금은 서투르지만 언젠가 아내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싶다”는 그의 말에 기타를 배우는 남다른 다짐이 느껴졌다. 사무실에도 기타 코드를 붙여놓고 연습할 정도라고 하니 세레나데를 불러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수강생들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제각각 달랐지만, 기타를 향한 애정과 열정만큼은 모두가 뜨거웠다.

김지운 강사는 “고등학생 때 취미로 시작했던 기타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강사와 더불어 밴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강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타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토벤은 기타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기타는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리듬’, ‘화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올 해 목표로 ‘악기 연주’를 계획했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사우들이라면 기타 강좌를 통해 숨어있는 감성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김지운’의 기타 교실

장소 한마음회관 3층 음악실

강의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시30분

수강료 9만원/3개월 (악기 대여 가능)

문의 052) 209-7900

기타에 대한 기본 상식



기타는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현악기)로, 크게 ‘어쿠스틱 기타(Acoustic guitar)’와 ‘전기 기타(Electric guitar)’로 나눌 수 있다.

현을 타격하는 것을 ‘피킹(Picking)’이라 하며, 연주법에는 피크를 이용하는 ‘피크 피킹(Pick Picking)’과 손가락을 이용하는 ‘핑거 피킹(Finger Picking)’이 있다.

기타는 음정을 제어하기 위한 넥(Neck, 목)과 음량을 증폭시키기 위한 8자 모양의 보디(Body, 몸체) 그리고 6개의 현으로 구성돼 있고, 현의 재료(금속, 나일론)와 조율 방법에 따라 음이 달라진다.

기타의 음계는 ‘C=도’로 시작하며, 기본음계는 반음 포함 총 12음계다.

나에게 맞는 기타 고르기



기타의 종류와 재료가 다양한 만큼 초보자들은 나에게 맞는 기타를 고르기 쉽다. 나만의 기타를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래 내용을 유의해보자.

첫째, 마감 상태를 확인하자. 기타의 목에 있는 지판 사이에는 샷덩이(프렛)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져보면 마감이 좋지 않은 기타는 프렛이 지판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 기타 연주 시 손가락을 베일 위험이 있다.

둘째, 지판과 현의 간격을 보자. 지판과 현의 간격이 멀수록 손에 피로감이 증가한다.

셋째, 손 크기에 맞춰 기타의 크기를 정하자. 학생이라 미니 기타를, 성인이란 일반 기타를 구매한다면 손에 맞지 않는 기타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





MF 김성주



ST 도요다 요헤이



LWM 박주호



울산 '맛집', 2월 신장개업 준비 완료!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비법은 사실 단순하다.

‘좋은 주방장’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레시피’로 조리를 하면 끝이다.

2018년 울산현대축구단은 지난해보다 더 인정받는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좋은 주방장’ 김도훈 감독이 코칭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레시피’를 연구 중이다.

그리고 그 요리에 정점을 찍기 위해 구단은 ‘좋은 재료’ 수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맛있는 요리 출시를 앞둔 울산현대축구단의 2월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GK 오승훈



CB 임종은



WF 황일수

챕터 1. '좋은 재료' 수급

울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역시 전력 강화다. 공격 수부터 골키퍼까지 전 포지션에 걸쳐 대대적인 보강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수를 FA(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 선수)로 영입해 효율적인 선수영입을 마쳤다.

우선 골문을 살펴보면 일본 J리그와 상주상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승훈이 팀에 합류했다. 일본에서 5시즌동안 활약한 후 K리그로 돌아와 상주에서 군복무를 마친 오승훈은 기존 김용대, 조수혁과 함께 골문을 든든히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진에는 박주호와 임종은이 합류했다. 독일 명문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울산에 이적한 박주호는 핵심선수로 왼쪽수비를 책임질 전망이다.

임종은은 자신의 프로 시작점으로 '금의환향'했다. 중앙 수비수 임종은은 울산 산하 유소년 팀인 현대중, 현대고를 거쳐 지난 2009년 울산에 입단하며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데뷔 시즌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출전시간을 늘려왔지만, 2010~2011년에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이후 성남, 전남, 전북을 거쳐 다시 울산에 돌아오게 되었다.

중원은 김성주가 새롭게 가세했다. 2012년 일본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2015년 서울 이랜드에 입단한 김성주는 상주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올해 울산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중앙 미드필더지만 왼쪽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멀티 자원으로 팀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끝으로, 공격진은 도요다 요헤이와 황일수가 울산에 입단했다. 공격수는 울산이 그 어느 포지션보다도 영입에 공을 들인 자리다. 주축 공격수인 이종호가 부상으로 6개월가량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대체자원 확보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울 최전방 공격수 도요다 요헤이는 일본 사간도스(1부)의 에이스로 J리그를 평정한 검증된 공격수다. 그는 사간도스 팬들에게 레전드로 대우받고 있는 선수다.

2010년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사간도스로 이적해 7시즌 연속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특히 2011년에는 24골을 터트려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끌고 득점왕을 차지했다. 도요다 요헤이의 사간도스에서 총 기록은 262경기 125골(리그 기준)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선수생활을 해온 도요다 요헤이는 선수로서의 경력과 국제대회 출전을 통한 성장계기를 만들고자 해외 리그 도전을 꿈꿔왔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적극적인 합류 요청을 받은 그는 고심 끝에 울산현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황일수는 빠른 발과 힘을 이용한 시원시원한 드리블이 특기인 측면 공격수로 '황사인 볼트', '황볼트' 등으로 불린다. 황일수의 가세로 울산은 기존 오르샤, 김인성 등 국내에서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발 빠른 측면 선수를 대거 보유하게 되었다.

챕터 2. '좋은 레시피' 만들기

사실 좋은 레시피는 지난해 FA컵 우승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마쳤다. 이에 '요리사'들의 프리시즌 목표는 기존의 레시피를 더욱 강화해 기존 선수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선수단은 지난 1월 10일(수) 포르투갈 알가르브로 전지훈련을 떠나 30일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도훈 감독은 "작년 시즌을 되돌아보면 FA컵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번 전지훈련 때는 그걸 채워 더 날카로운 호랑이 발톱을 만들고 오겠다"며, 전지훈련에 앞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울산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한편, 마테르스부르크(오스트리아 1부), 포르티모넨세(포르투갈 1부), 페렌츠바로시(헝가리 1부), 베이징 귀안(중국 1부) 등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조직력을 강화하고, 실전 감각을 높였다.

지난 1월 31일 전지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은 짧은 휴식을 가진 후 오는 2월 초부터 울산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이후 2월 13일 멜버른 빅토리(호주)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018시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 박종민 대리(울산현대축구단 팬&미디어팀)

울산현대축구단 2월 ACL 경기 일정

일시	상대팀	장소
2/13(화) 오전 10시	멜버른 빅토리	호주 렉탱굴러 스타디움
2/20(화) 오후 12시	가와사키 프론타레	울산문수축구장



이경민 간호사

현대미포조선 환경보건팀

2018년 한라산 일출 산행

1년에 단 하루만 야간 산행이 허락되는 한라산. 무술년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친구와 야간 산행을 도전했다.

집은 어둠과 신선한 공기 때문일까? 하늘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땅으로 쏟아질 것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어둠속에 헤드랜턴으로 불을 밝히고 가는 길은 환상적이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잠시 야경에 빠져 감탄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새벽 6시, 주변에 구름이 보여서 그런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일출 예정시각은 7시 38분.

영하 11도의 강추위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지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진달래 대피소에서 정상까지의 난코스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서니 6시 30분.

해뜨기 전 여명과 운해를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말 한마디 글자 몇 글자로는 도저히 표현 못 할 그 감동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히말라야는 한라산 등반보다 몇 백 배 더 힘들겠지만 아마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상상해봤다.

친구와 나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인생샷'을 위해 실루엣 사진을 연거푸 찍어댔다.

떠오르는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3가지 소원을 빌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은 비밀로... 세 번째는 당연히 "현대미포조선 무재해 안전기원!"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을 뒤로 하고 파란 하늘과 나무에 송송 맺힌 눈꽃을 바라보며 하산했다. 총 산행시간 1시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걸었나 싶다.

이번 산행이 더욱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 2번이나 도전 했지만 대설로 인한 도로통제로 등반을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출로 인해 모든 걸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힘들었지만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고 싶다. 아직 그 날의 짜릿한 설렘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지금은 내가 어느 순간 히말라야로 가는 비행기표를 덜컥 끊을까봐 겁이 난다. 그곳에 가면 내 남은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자기 계발' 도전하는 한 해

장기간의 유급 휴직은 입사 이후 처음이었던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어려운 회사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얻은 게 있다면 그동안 회사에 매달려 일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이다.

유급휴가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도배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함께 풀을 바르고 힘을 합해 새 벽지를 붙이면서 '멀리 여행을 못가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행복이 사소한 것임을 절실히 공감했다.

지난 한 해 나는 자기 계발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결과 국가기술자격증을 7개나 따서 나 자신도 크게 놀랐다.

그 중에서도 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계장비 산업기사 자격증은 획득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특히 이 자격증은 실기시험 정보가 없어 준비가 막막했다. 그러던 중 광양제철소 기술교육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주말마다 장거리를 오가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제철소 직원이 아니면 교육이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이 캄캄했지만, 어떻게든 배워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사님한테 사정을 했고, 결국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참 고마운 분이다.

자격증을 따기까지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결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달콤했다.

거기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빠를 보고 존경한다고 말했을 때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5주 간의 휴직기간에도 어느 때의 여가시간처럼 공부를 계속한 나는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유급휴직은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한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였다. 2018년 새해에도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정철모 반장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한지현 기사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겨울의 눈송이같은 우리집 세 남매

겨울이면 손바닥에 사뿐히 앉아주는 눈송이처럼 제 품에 찾아온 눈송이들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동생들을 돌볼 때는 항상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몸도 마음도 둥글둥글한 7살 눈송이 동우.

성격은 까칠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온 집안을 휘집고 다니지만 항상 오빠와 동생을 챙기는 천방지축 3살 눈송이 가온.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나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달래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귀염둥이 울보 3살 눈송이 누리.

생각지도 못하게 곁으로 다가와 사뿐히 저의 품에 안긴 눈송이들. 처음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을 때 웃고 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눈송이들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켜보며 어르고 달래는 동안 눈송이들이 점점 커져 이제는 어느덧 눈덩이가 되어 눈싸움 하듯이 정신 없이 날아오네요.

그래서 항상 주말동안 같이 놀아주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온 참전 용사처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눈송이들에게 항상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들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다섯식구 빠듯한 생활에 변변치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눈송이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눈송이들이 말도 안 듣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때때로 혼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들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울다가도 어느새 까르르 웃으며 곁으로 다가 올때마다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결정체를 품고 있는 한 겨울의 눈송이처럼, 우리 눈송이들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키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

차분하고 담담하게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 지나간 그 자리에 채워진 새해.

단순히 달력에 숫자 하나 더해졌을 뿐인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계획과 다짐은 그 바뀐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희망하고 설레어든 한다.

그냥 삶의 연속이요, 어제의 내일일 뿐인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어버려서 괜스레 억울한 기분이다. 회사에 입사한지 두 해가 바뀌었다.

어설퍼던 청소 일도 나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동료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던 일들은 지금도 죄송스럽다.

남들은 청소 일이라 조금 터부시 여길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나의 바쁜 손 놀림에 의해서 깨끗하게 변해가는 일터가 있어서 너무 좋다.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입사하였을 때도, 아니 그 전부터도 많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미화를 담당하는 우리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힘들고 마음이 지치는 시기를 모두 함께 겪고 있는 듯 하다.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움츠러든 날개에 기운이 생겨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비상하는 상상을 해본다.

얼어버린 땅에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김정숙 사원
현우서비스





김동영 소장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눈, 치명적인 아름다움

2018년 1월 11일, 최강 북극 한파가 몰아친 이날,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동안 심 없이 눈이 쏟아져 이곳은 일본 북해도 부럽지 않은 설국으로 연출됐다.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 같았다. 나는 황홀한 기분에 취해 겨울이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흔히 '아름다움'은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 말은 풍성한 장미 잎엔 날카로운 가시가 있듯 아름다움 뒤에는 늘 치명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눈일지라도 도로와 수도 등을 꽁꽁 얼려 사람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서시'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나라 왕 부처는 월나라 서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나라의 정사를 뒤로한 채 패망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고작 한 순간이다. 두 눈이

시릴 정도로 멋진 경관을 선사하는 이 흰 눈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 우리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손과 발을 꽁꽁 얼리는 추위지만 웃으며 눈싸움을 즐기는 아이들도 이 아름다운 눈이 곧 사라질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일까!

환경 운동가 레이첼 카슨은 '아름다운 것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에는 비온 뒤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었던 무지개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 언젠간 이 흰 눈도 겨울이 되어도 북쪽 지방에서만 간간히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눈과 무지개를 교과서에서만 만나는 일이 없도록, 조상들의 무자비한 자연 파괴로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책이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오늘도 물티슈 대신 걸레를 사용하고, 승강기 대신 계단에 몸을 실으며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한다.

거울

붉은 닭이 꼬꼬댁 소리 내며
내 눈앞에 얼췌거리더니만
이제는 검푸르스름한 꿈지만 보인다

닭의 머리와 벼슬 그리고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질 않아
애써 기억하려 눈을 감는다

닭은 보이지 않고 어린애가 보인다
겨울 논바닥에서 썰매 타며 놀고 있는
해맑은 소년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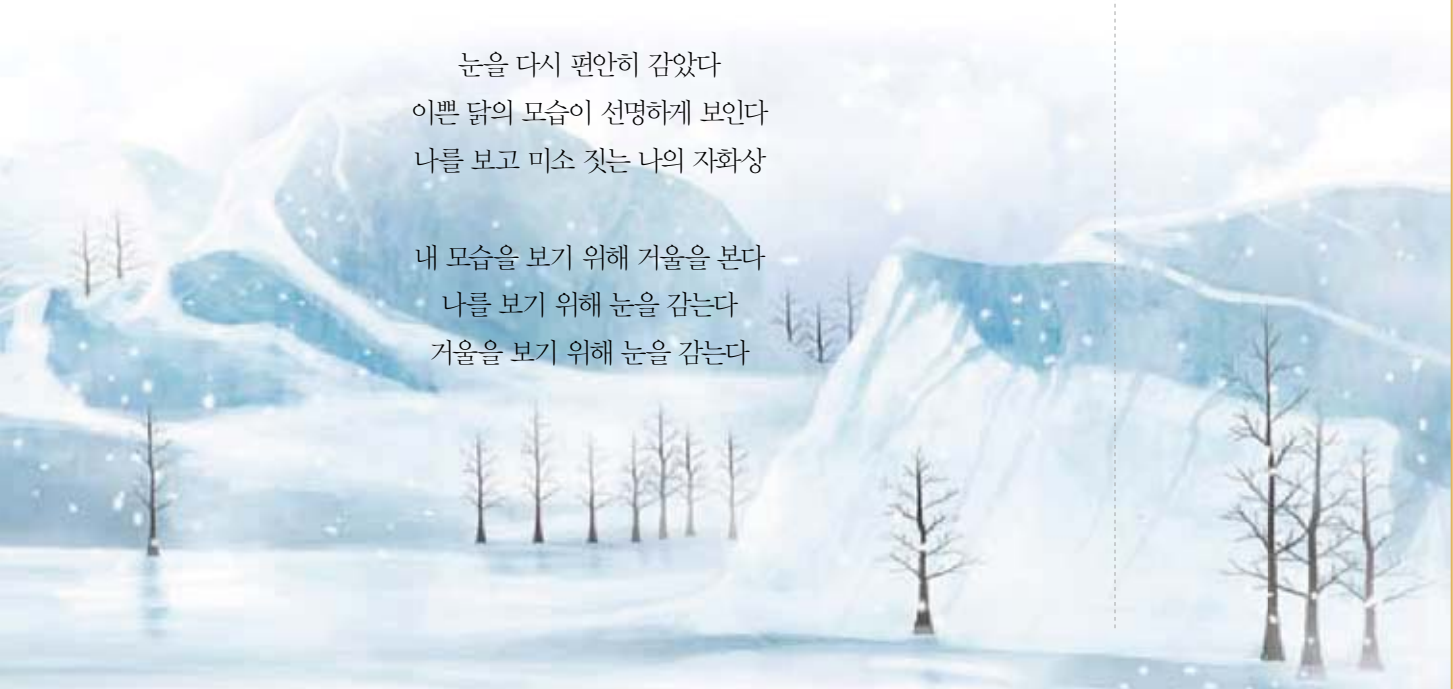
눈을 떠보니 명경의 호수가 보인다
하늘도 까맣고 호수도 까맣고
그 경계만 쌍둥이 노랑불빛이 지키고 있다

눈을 다시 편안히 감았다
이쁜 닭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나를 보고 미소 짓는 나의 자화상

내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본다
나를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거울을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박태동 수석연구원
현대건설기계 선행생산기술팀



이 글은 제25회 '계간 에세이문예'에 수필 분야 신인상을 수상한 수기 전문입니다. 배재록 퇴직사우는 최근 제13회 머니투데이 경제신춘문예에서도 수필·수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배재록

2016년 현대중공업 퇴직

바다 냄새

저녁식사 모임이 있어 방어진항에 갔다. 바다에 어스름이 깔리자 배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방어 등대'까지 빛을 내뿜자 바다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불빛이 양상불을 이룬 심연의 방어진항은 무릉도원이다.

바위 사이로 엉금엉금 기는 바닷게 한 마리를 잡았다. 여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저만치 날아갔다.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살아났다.

내가 근무를 한 회사 사무실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었다. 창문을 열면 소금기를 머금은 바다 냄새가 훅하고 스쳐간다. 특히 해일이 이는 날의 바다 냄새는 강렬하게 난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음이온이 발생되어 몸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바다 가운데는 갯바위가 종처럼 서 있다. 너울이 덮쳐도 갯바위는 파도를 부수고 제 모습을 의연하게 드러냈다. 갯바위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경배를 느끼곤 했다. 아픔 생채기를 치유받은 것이다. 그 갯바위가 주는 교훈과 더불어서 의로운 회사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바다를 가르며 달려가는 풍경은 그림과 같다. 커피를 마시면서 눈길을 주면 해엄쳐 온 파도의 후음이 바다의 교향시를 읊어 주었다. 바다 냄새를 싣고, 시원한 바람과 다양한 쪽빛 색깔을 담고, 저 멀리 뱃고동 소리까지 담아 자연이 만들어낸 협주곡을 들려주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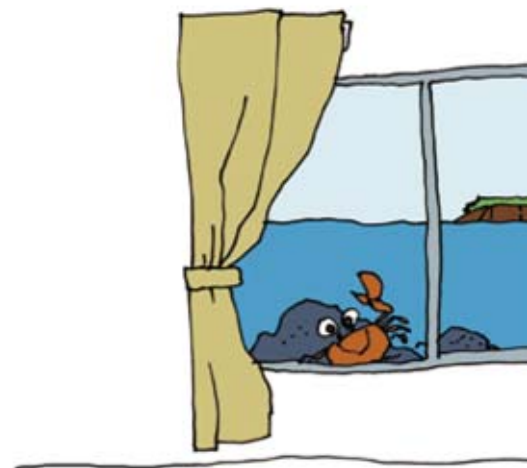
그러나 바다는 늘 변화무상 했다. 파도가 심하게 밀려와 방파제에 부딪히는 날이면 바다 전체가 출렁이며 마치 지진이 난 듯 무섭증을 일으킨다. 옛날 한 때는 심한 해일이 공장을 덮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다 냄새가 한동안 공장 안에 진동 했었다.

성난 파도는 바다가 좋아 바닷길로 출퇴근하던 직장 동료의 목숨을 앗아 갔다. 불운하게도 파도의 비수를 맞고 높은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 했다.

나에게 건넨 "먼저 퇴근 한다"는 인사가 마지막 이별이었다. 기구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와 나는 이별 며칠 전 여행연습을 했었다. 청빈하고 착실한 가장인 그와 나는 오랜만에 술집에서 과음을 했고 광란의 밤을 보냈다. 우리가 보낸 운명의 그날 밤이 그를 저승으로 보내는 송별회가 된 것이 나를 슬프게 했다.

졸지에 부군을 잃은 그의 아내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사무실까지 한참 동안 머물다 갔다. 나의 격한 슬픔까지 대신해 준 그의 부인은 실신을 했다. 애달픈 모습을 바라본 하늘이 도운 것인지 다행히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스크랩을 해서 보관 중이던 회사 간이신문에서 그가 쓴 글을 찾아 낸 “나만의 출근 길”이 그의 유서가 되어 버렸다. 내가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원고청탁 주제를 주고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재구성하여 글로 옮긴 것이었다.

그래서 자료도 쉽게 찾아냈다. 가족의 자료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펜의 힘은 대단했다. 양심으로 고인의 가족을 도운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 울분에 찼던 바다를 증오하며 한동안 바닷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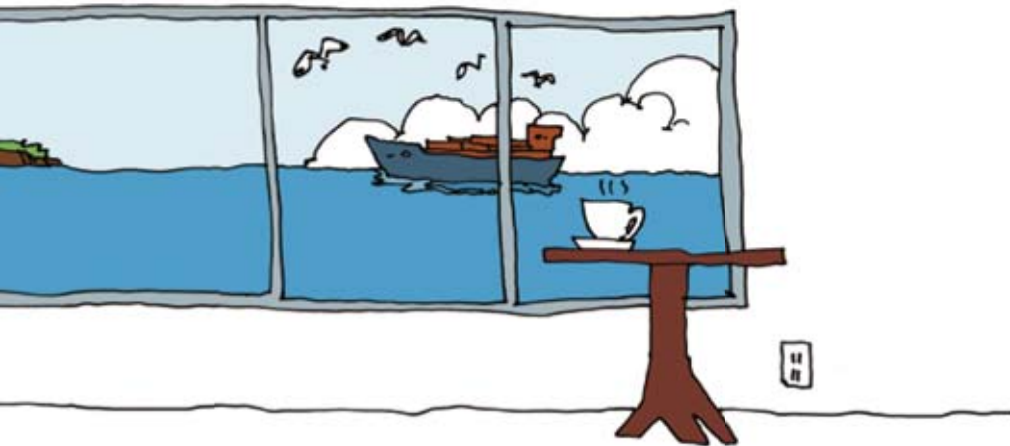
그러나 출근하면 바라다보이는 저 무시무시했던 바다 냄새가 다시 나를 유혹했다. 집요한 유혹이었다. 바람에 실려 온 바다 냄새에 속수무책으로 넘어 가고 말았다. 바다와 하늘이 닿아 있는 수평선과 배를 몇 척 띄운 잘 그려진 그림으로 유혹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짙푸른 색감으로 깊은

물속을 만들어 삶의 그윽함을 갖게 했다. 그 바다는 늘 한결같은 바다냄새를 지니고 있다. 보여지는 바다는 그저 바다지만, 내 마음속 바다는 종교처럼 영향을 준다.

밤이 이슬하여 방어진항 선박의 불빛은 흘러수선을 넘나든다. 사위가 밝은 불빛은 장차 내가 난관을 뚫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 믿었다. 알싸한 원초적인 바다 내음을 맡기 위해 회를 날 것으로 먹어 본다.

심해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회가 혀끝에서 향긋한 바다 냄새를 가득 풍기기 시작했다. 그윽한 미각이 미동도 하지 않고 내 혀바닥에 머물러 있다. 쓴 소주를 마시자 뱃속은 마술 같은 울동을 시작 했다. 파도가 싹 하고 밀려오자 바다 냄새와 겹쳤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곰에서 왕으로 :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나카지마 신이치 著)

이 책은 일본을 대표하는 인문학자의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현대인들이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으로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사고의 가치와 인간 정신의 원형의 숭고함을 야생으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동아시아의 신화를 통해 곰에서 왕으로 그리고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모습을 그리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또한 저자는 국가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의 탄생, 현재의 문명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 과거 인류의 고귀한 정신의 원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 신화뿐만 아니라 동양적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 강이준 과장



호모데우스 (유발 하리리 著)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 중에 이제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화의 산물이 오히려 인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사건의 파급효과를 상기한다면 이 미래는 획극적일 수도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초지능적인 네트워크가 통제하는 미래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인류의 흐름과 미래 세계의 전망을 섬뜩하리만치 긴밀하게 연결시킨 저자의 폭넓은 역사적 이해와 창의적인 해석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김인규 대리



노세포 재활로 치매치료 가능하다 (김철수 著)

백세 시대에 찾아오는 불청객, '치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기에 더욱 두려운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치매를 노세포의 '재활'로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를 융합하여 치매 치료 연구에 몰두하는 저자가 획기적인 치매 치료법을 설명합니다. 치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는 물론, 흔히 생각하는 치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치매 증상과 더불어 예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다양한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이제 여러분도 재앙이 아닌 축복의 백세 시대를 누리길 바랍니다.

현대삼호중공업 RIG팀 김유리 사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著)

tN의 '알쓸신잡'이란 프로그램이 대 히트를 치면서 다시 각광받게 된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사우들에게 추천합니다. 울산 및 경남, 경북지역은 찬란했던 신라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읽고 불국사나 문무왕릉을 다시 찾게 되면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미학사를 왜 공부하냐고 물어본다면 '아는 만큼 보이나'고 공부한다고 했던 저자의 서평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미술관을 가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꼭 찾아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주말에 나들이 삼아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찾는다면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중공업 생산공정연구실 민형철 주임연구원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사장의 도리 (이나모리 가즈오 著)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의 경영자이자 '살아 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이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가 수십 년간의 경영 현장에서 번치 않고 지켜 온 인생과 경영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사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시작은 그리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시에서 2번 떨어졌으며, 대학 입시도 실패를 겪고, 결핵까지 앓았던 운 없는 청년은 몇 번의 취업 실패 끝에 결국 망해가는 회사에 취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일에 몰두한 끝에 자신의 길을 찾아내 한 명의 직원이 회사를 되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후 창업에 도전해 결국 일본 대표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 그리고 번치 않고 지켜온 원칙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백기동 차장



이야기가 흐르는 시 (전가람 著)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을 이루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시집을 보면 특히 가족,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흐르는 시」는 살아가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족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얇은 시집이지만, 독자는 각각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소하고 소박한 기쁨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긴 밤을 틔타 따뜻한 감동시 한편으로 추운 겨울, 마음을 녹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보건팀 허한솔 사원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著)

새해의 첫 달인 1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의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하지만 늘 현실의 벽 앞에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신년계획은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가곤 하죠.

저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 문제를 주인공 '벤'의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이뤄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지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또, 나를 위한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해결책은 자신이 진 칼자루에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이 될 때,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선장설계부 박지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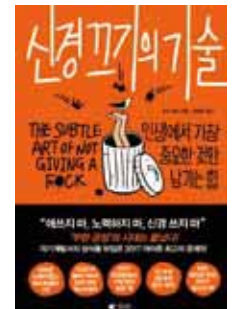
신경 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 著)

이 책은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저자는 무조건 믿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뒤 따지지 않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것을 배제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이 책을 선물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문제를 '더 나은 문제'로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외주구매팀 김민규 과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결혼



현대중공업 조선협력사지원팀
이유주 대리

신랑 이유주·신부 이지영
1월 13일

서로가 마주 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PDP/MFT공사부
정현식 기사

신랑 정현식·신부 이상숙
1월 20일

저희 두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
김재형 대리

신랑 김재형·신부 배지현
2월 3일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로 아껴주며 이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출산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이명용 과장

아빠 이명용·엄마 이민자·딸 이다원
1월 10일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인
우리딸 다원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렴!
사랑해♥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이영채 조장

아빠 이영채·엄마 윤선화·아들 이시훈
1월 10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현대건설기계 조립부
고은혁 기사

아빠 고은혁·엄마 문미영·아들 토리(아명)
1월 15일

토리야. 인성을 갖춘,
착하고 건강한 남자가 되렴.
그리고 미영아 사랑해♡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의 결혼, 출산, 돌 등 소중하고 행복한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우 분들은 매월 20일까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gp069@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돌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최상호 과장

아빠 최상호·엄마 한줄기·딸 최수안 아들 최지안
1월 2일

최고의 선물! 축복&극복아~
처음 맞이하는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워~!
항상 밝은 웃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사랑해♥



현대중공업 조선생산기획부
정종현 과장

아빠 정종현·엄마 홍재선·딸 정주아
1월 5일

부모라는 이름을 선물하고
큰 사랑과 감사를 가르쳐준 우리 주아가
드디어 첫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
이상률 대리

아빠 이상률·엄마 공송희·딸 이나정·이세현
1월 6일

이쁜 공주님들이
첫 번째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스런 나정이와 세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정대웅 대리

아빠 정대웅·엄마 조아라·아들 정민규
1월 13일

우리 아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첫 생일 맞이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밝고 씩씩하게 크자꾸나 ^^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단다 ㅎㅎ
사랑한다!



현대미포조선 온산공장부
김현중 과장

아빠 김현중·엄마 이경미·딸 김서이
1월 18일

사랑하는 내 딸 서이야!
서이의 첫 울음 소리에 감격하던 그때로부터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흘렀네
첫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현대일렉트릭 제품보증부
유승완 기사

아빠 유승완·엄마 윤신혜·아들 유태욱
2월 3일

태욱이가 세상에 태어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태욱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오셔서 축복해주세요~

‘월세를 올려달라’는 임대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질 문

송과장이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2016년 1월에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이동하면서 송과장도 서울에 있는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살 곳을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일부 전세를 끼고 월세 7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임대인이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송과장은 인터넷에서 임대인이 월세를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릴 수 없고, 5%의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월급 인상은 제자리인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 웬지 서글프기만 합니다. 송과장은 임대인의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우선 계약과 관련하여 대륙법과 영미법을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Pacta sunt servanda(팩타 순트 세르반다)”로, 뜻은 ‘약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차임(월세)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위와 같은 계약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한 대로 월세를 내겠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시 월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 **월세 등 임대조건을 새롭게 합의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고, 그러한 사정변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계약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차임증액(월세 인상)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미 한차례 차임증액 청구를 했을 경우, 1년 이내에는 재차 증액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이를 근거로 새롭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서도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위 규정은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월세 인상 ‘5% 룰(Rule)’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한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증액이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이를 기초로 송과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임대차계약은 주거에 관한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송과장의 경우 2016년 1월 경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의 경우라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송과장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인상이 5%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송과장은 좀 더 월세가 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nhc.co.kr), ☎02-746-4667

현중이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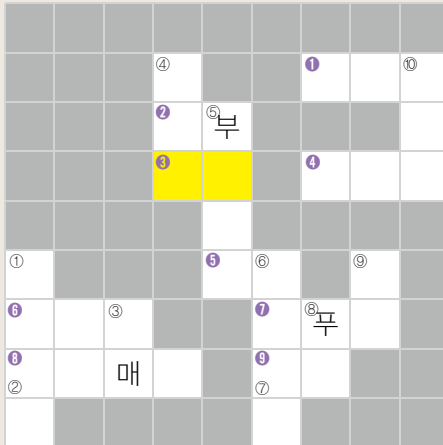
by 연자씨



쉬어가는 페이지

당첨된 사우는 사원증을 가지고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상품(권)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① 색이 바래 보기 힘든 책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공예, 페이퍼 아트의 줄임말. (p.26 참고)
- ②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③ 전세기인의 축제인 2018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도시. (p.50 참고)
- ④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
- ⑤ 기대00이란, 어떤 해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나이로, 2016년 남자의 기대00은 79세다. (p.42 참고)
- ⑥ 생화 또는 조화(造花)를 모아 만든 다발.
- ⑦ 사회복지법인 000 복지재단은 울산 유일의 미혼모 시설로, 미혼모의 출산과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p.24 참고)
- ⑧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둬.
- ⑨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세로 열쇠

- ① 나뭇가지 따위에 꽃이 핀 것처럼 얹힌 눈. 2월이면 대관령과 지리산 남원 바래봉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축제를 진행한다. (p.55 참고)
- ② 옛 선비들은 매서운 겨울 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이 꽃을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보았다. (p.38 참고)
- ③ 상품이나 증권 따위를 내어 팔. 또는 그것을 팔기 시작함.
- ④ 겨울이 제철인 전갱이과의 어류로, 부시리와 생김새와 맛이 유사하지만 다른 어종이다. (p.36 참고)
- ⑤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나하면, 아내는 그 일을 도움,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
- ⑥ 그 지방의 이름난 물건.
- ⑦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로, 크게 어쿠스틱 00와 전기 00로 구분한다. (p.67 참고)
- ⑧ 마음에 품은 불만을 드러내어 말하는 일.
- ⑨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
- ⑩ '재잘거린다'라는 뜻으로,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영남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Hotel Hyundai 뷔페권

황석진 현대중공업 플랜트고객지원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박태욱 현대중공업 도장1부

이다현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송재철 현대일렉트릭 제품보증부

이 완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이강철 현대중공업 박용기계영업1부

진명희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신영진 현대중공업 NASR GTP 공사부

김태우 현대건설기계 노사협력팀

권인호 현대미포조선 선장설계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2매)

배준기 현대중공업 기계가공부

이동곤 현대중공업 산업보안팀

백상현 현대일렉트릭 배전반생산부

김대정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정승우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OUTBACK 식사권(5만원)

김완규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윤성욱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 1부

Hotel Hyundai 케이크 교환권(1매)

진현식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박찬근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1만원)

박희성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현주호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박 훈 현대삼호중공업 도장1부

나용상 현대삼호중공업 산업기술부

김진환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신안 천일염

윤영오 현대삼호중공업 안전팀

정창환 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



기프트 카드(2만원)

윤병화 현대삼호중공업 선실생산부

김도현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지난호 정답

행	복				강	강	이
	승		박		충		
	아		주				
언	용	호	상	박			무
양	종						술
알			근	하	신	년	
프	랑	스		교	육		
스	키	워드		개	넵		
					장	병	

가로 3번의 정답을 2월 19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
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사람

news@hhi.co.kr

정답

회사명

부서

이름



현대중공업 해양설비공사부 위건양 기사

2018년 작심삼일 하지 않고, 한철 50회 달성, 소방시설관 리사 1차 준비 및 합격 등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모두 희망하시는 일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중공업 파이팅!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김대정 대리

‘현장을 가다’ 코너를 읽고 사우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안전요원들의 노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2018년 중대재해 ‘0(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김은지 사원

2018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표지를 보고, 진정으로 새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었던 ‘유토피안 프랑스 자수’ 페이지를 보고 이번에는 꼭 배워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을 가다! 너무나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시는 사우님들 멋지십니다.

현대중공업MOS 경영지원부 김명준 기사

사보를 보며 항상 느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안전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 현중MOS 임직원과 항상 안전에 대한 기사나 지식을 공유하는 현

대중공업 사보처럼 사우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에도 안전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소식을 전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이완 기원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혼자 책을 읽다보니 좋아하는 장르를 주로 고르게 되는데 사우들의 추천 도서를 보고 다방면의 책을 골고루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추천해주세요.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고연우 사원

평소 자녀와 함께와 지역소식을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에 대한 소개 글이 읽노라면 왠지 여행을 떠나는 기분에 사로잡혀 간접적으로나마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 부탁드립니다.

청원테크 박상준 사원

지난달 사보 현중 가족글마당 코너에서 아버지의 정년을 축하하는 아들의 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년 퇴임하신 사우 분들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사보의 페이지를 활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2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2월 19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20th

현대예술관 개관 20주년

20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기획공연

- 02.23 신춘음악회 소프라노 캐슬린 김 리사이틀
- 03.14 일본 뉴에이지 그룹 '어쿠스틱 카페' 화이트데이 콘서트
- 04.09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04.20-04.21 유니버설발레단 '지젤(Giselle)'
- 05.03-05.05 어린이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 05.26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봄날의 꿈'
- 06.14-06.16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 06.20 앙상블 '디토' 콘서트
- 07.11 캐나다 아트서커스 '서커폴리스(CIRKOPOLIS)'